

2012년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조사

Research on Consumer and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박희석 김범식 김묵한

연구진

연구책임	박희석 •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연구원	김범식 •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위원
	김목한 • 서울경제분석센터 부연구위원
	곽지원 •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위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를 2008년 3/4분기부터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기업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로서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지표임.

2. 조사 방법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함.

-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
 - 부가적으로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따름.
- 응답대상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함.

〈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25	223	324	260	168	1,000
도심권	1	11	15	12	11	50
서북권	3	26	35	29	23	116
서남권	9	71	97	79	49	305
동남권	4	41	70	55	27	197
동북권	8	74	107	85	58	332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CSI} = & (\text{'매우 나쁨'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나쁨' 응답빈도} \times 50 \\
 &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좋음' 응답빈도} \times 150 \\
 & + \text{'매우 좋음'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end{aligned}$$

-CSI의 범위는 $0 \leq CSI \leq 200$ 이며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함.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임.

(3) 설문 내용

○ 기본조사는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소비자경기전망과 관련된 지수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함.

〈표 2〉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 지수

분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지수 이용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예상지수
	구입태도지수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소비지출지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순자산지수	-
	고용상황전망지수	-
	물가전망지수	-

○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2)기업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 8,530개 업체로 정함.
 - 조사 대비 목표 표본수가 500개로 작기 때문에(전경련 조사와는 비슷함) 서울시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수기업/수출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조사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서울 소재 영리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조사대상 기업 지정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서울 소재 영리 기업 명부를 이용함.
-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목표 표본 500개 업체를 추출함.
 - 네이만 배분방식에 의해 10개 업종, 5개 매출규모로 500개를 업체 비율에 따라 할당함.

(2) 분석단위

- 기업체감경기 부문의 지수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 이 방법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산출 방법과 비슷하고 그 기준도 같아 서울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에 사용하기로 함.
 - 경영부문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기업체감경기지수(BSD)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SI = (\text{'매우 감소'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text{'매우 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BSI의 범위는 $0 \leq BSI \leq 200$ 로 BSI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함.

○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응답률이 임의적 (Random)이지 않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응답률이 95%, 소기업은 응답률이 40%일 때, 표본분포가 기업규모에 대해 대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하여 응답률과 업종별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규모별 가중치는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1차 가중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함.

$$BSI = \sum_{i=1}^n w_i \cdot BSI_i$$

응답률 가중치: w_{i1}

업종별 매출액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w_{i2}

최종 가중치: $w_i = w_{i1} * w_{i2}$

○ 500개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종업원 수별, 매출액별 등으로 나눔.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업종별, 기업형태별임.

(3) 설문 내용

-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기업체감경기지수(BSI)와 관련된 세부지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비고
업황지수	-	현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전망
매출지수	내수부문, 수출 부문	
경상이익지수	-	
자금사정지수	-	
생산/설비부문지수	생산, 설비 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제품재고지수	-	
종사자수지수	-	

-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3. 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전망조사

(1) 소비자태도지수

- 2012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83.8을 기록해 지난 3/4분기보다 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2년 4/4분기 각각 99.3, 98.0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13.4p 상승했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2.6p 하락하여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201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8.3, 「미래경기판단지수」

는 88.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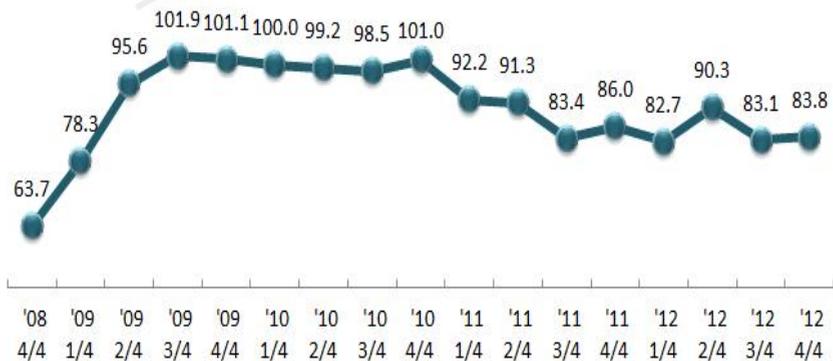
-이는 지난 3/4분기에 비해 각각 1.3p 하락하고 2.7p 상승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생활형편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를 눌러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완만한 상승세를 주도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높은 곡물가격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12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9p 상승한 97.7,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4.2p 상승한 99.8을 기록

〈표 4〉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4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2012년 2/4분기	90.3	87.2	105.6	64.2	97.4	96.8	100.0
2012년 3/4분기	83.1	85.9	100.6	49.6	85.5	93.8	95.6
2012년 4/4분기	83.8	99.3	98.0	48.3	88.2	97.7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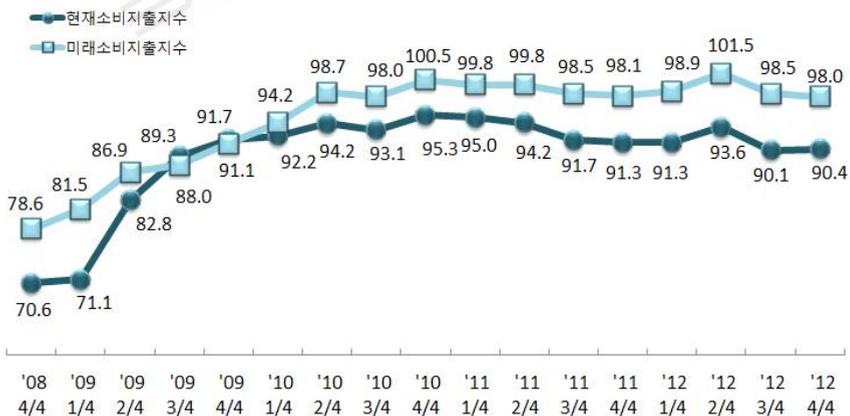
〈그림 1〉 소비자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 2012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90.4,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98.0을 기록하여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
- 2012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4.6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여 2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함.
- 2012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4.7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하여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
- 2012년 4/4분기 「물가에상지수」는 전분기대비 5.8p 하락한 145.7로 물가불안 심리는 다소 안정

〈표 5〉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에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2012년 1/4분기	91.3	98.9	96.8	88.0	147.1
2012년 2/4분기	93.6	101.5	99.2	94.0	146.3
2012년 3/4분기	90.1	98.5	95.2	83.8	151.5
2012년 4/4분기	90.4	98.0	94.6	84.7	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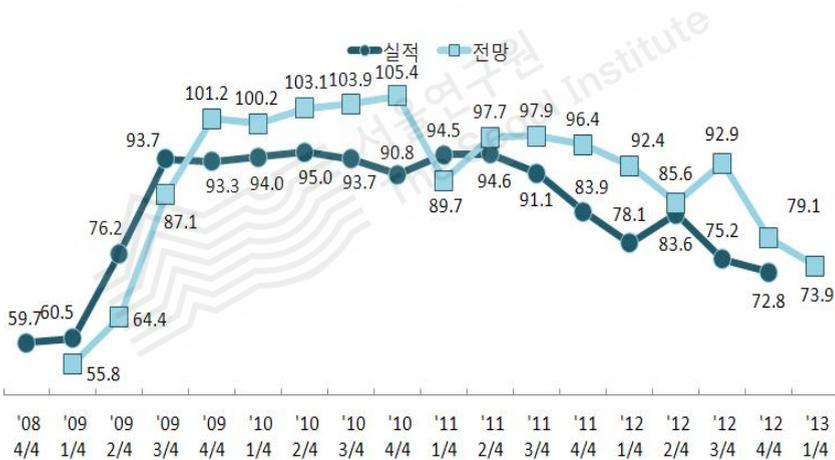


〈그림 2〉 소비지출지수

2) 기업경기전망조사

(1) 업황지수

- 2012년 4/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72.8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1/4분기 전망치도 73.9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여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74.0으로 전분기대비 5.4p 하락하였고,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72.1로 지난 2/4분기 이후 연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2013년 1/4분기 업황전망지수가 각각 74.0과 73.9로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업황지수

(2) 실적 및 전망 지수

- 2012년 4/4분기 「매출액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3.7p 하락한 74.8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1/4분기 전망지수 역시 77.1로 전분기대비 10.0p 하락하여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12년 4/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6.1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1/4분기 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2.4p 하락한 76.5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4/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84.0으로 5분기 연속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 2012년 4/4분기 「종사자수 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8.9p 하락한 92.0으로 추후 고용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서울지역 기업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2013년 1/4분기
매출	89.5	88.3	87.6	78.5	74.8	91.7	96.9	89.3	87.1	77.1
내수	90.5	89.6	87.2	78.9	76.1	93.0	98.5	88.6	87.6	78.4
수출	87.3	84.1	89.0	85.8	78.7	88.9	92.4	90.8	96.2	83.6
생산	88.2	82.7	89.8	88.5	81.3	89.2	86.8	92.9	91.2	84.9
설비 가동률	88.7	89.6	95.6	89.1	79.0	91.7	89.4	98.0	91.1	81.1
설비투자 규모	86.5	90.2	83.6	93.1	90.0	87.4	90.7	85.1	93.8	92.0
경상이익	90.0	86.4	86.9	81.9	75.8	92.3	95.1	89.7	88.9	76.5
자금사정	93.2	89.5	88.5	85.3	84.0	95.1	92.8	94.3	88.2	86.3
제품재고	101.5	101.3	107.1	93.1	108.5	100.9	103.2	107.3	102.7	110.0
종사자수	92.2	92.8	97.9	100.9	92.0	94.1	92.5	97.3	94.1	91.5

* 전망은 해당분기의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분기에 조사된 결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를 통해 작성된 각 지수는 서울지역 경기를 평가하는 주요 지역통계로 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진단이 필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 시차,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 반영성, 그리고 향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경기조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실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



〈그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2) 모니터링 결과

(1) 소비자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연구원 소비자경기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국)
소비자태도지수(서울연구원)	0.989 (0.000**)	0.950 (0.000**)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2)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연구원 기업경기조사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구분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업황-실적(전 산업, 서울연구원)	0,962 (0,000**)	0,948 (0,000**)
업황-전망(전 산업, 서울연구원)	0,955 (0,000**)	0,861 (0,003**)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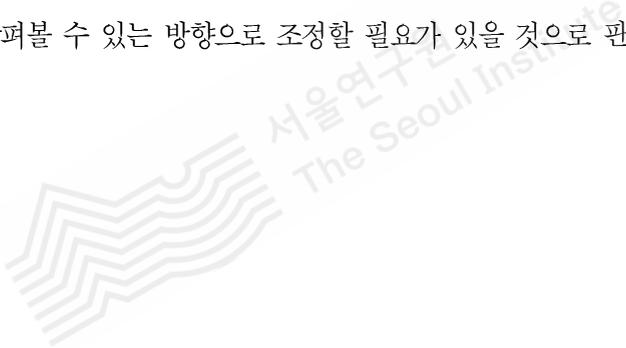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3)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와 기관별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경기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모두 경기반영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지자태도지수를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를 비교한 결과 각 지수의 경기흐름이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 역시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흐름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전면적 개편보다는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특성을 현재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3)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 서울시 권역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공간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각 권역의 경기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 작성 및 발표방안 모색
 - 분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부가조사를 가계부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진단과 같은 조사로 변경하여 주기적 조사를 통한 부족한 관련 통계 보완 및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조사샘플, 지수산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특히 기업경기조사의 부가조사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흐름	5
제2절 조사 방법	6
1. 표본 설계	6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11
3. 설문조사 내용	15
제2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언론보도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29
제1절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 언론보도 현황	29
1. 언론보도 실적	29
2. 언론보도 예시	32
3. 서울연구원 원내 연구결과 활용 현황	37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42
1. 개요	42
2. 모니터링 결과	45
3. 개선방안 및 패널유지율	64
제3장 2011년 4/4분기 조사 결과	69
제1절 2011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69
1. 소비자경기지수	69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73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77

제2절 2011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80
1. 기업경기지수	80
제4장 2012년 1/4분기 조사 결과	87
제1절 2012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87
1. 소비자경기지수	87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91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95
제2절 2012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98
1. 기업경기지수	98
제5장 2012년 2/4분기 조사 결과	105
제1절 2012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05
1. 소비자경기지수	105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09
3. 가계부채 현황	113
4. 부가조사 : 사교육비 지출	116
제2절 2012년 2/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19
1. 기업경기지수	119
제6장 2012년 3/4분기 조사 결과	127
제1절 2012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27
1. 소비자경기지수	127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31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135

제2절 2012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38
1. 기업경기지수	138
제7장 2012년 4/4분기 조사 결과	145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145
제2절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149
제3절 서울의 4/4분기 기업 체감경기	154
제4절 2013년 서울경제 전망	158
제8장 시사점 및 정책제안	163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63
1. 2011년 4/4분기 : 2012 경제전망	163
2. 2012년 1/4분기	164
3. 2012년 2/4분기 : 2012년 하반기 전망	165
4. 2012년 3/4분기	166
5. 2012년 4/4분기 : 2013년 서울경제 전망	167
제2절 정책제안	168
1. 2011년 4/4분기 : 2012 서울경제 전망	168
2. 2012년 1/4분기	168
3. 2012년 2/4분기 : 2012년 하반기 전망	170
4. 2012년 3/4분기	171
5. 2012년 4/4분기 : 2013년 서울경제 전망	172
부 록	177
영문요약	189

표 목 차

〈표 1-1〉	가구주 연령별 구별 가구 분포	6
〈표 1-2〉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7
〈표 1-3〉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8
〈표 1-4〉	5개 권역 구분 기준	8
〈표 1-5〉	조사대상기업의 모집단 분포	9
〈표 1-6〉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네이만(Neyman) 배분에 의한 표본 할당	10
〈표 1-7〉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11
〈표 1-8〉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12
〈표 1-9〉	기업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13
〈표 1-10〉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14
〈표 1-11〉	타 기관 대비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지수의 비교	17
〈표 1-12〉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18
〈표 1-13〉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19
〈표 1-14〉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체계	22
〈표 1-15〉	기관별 기업체감경기지수 비교	23
〈표 1-16〉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24
〈표 1-17〉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25
〈표 2-1〉	벤치마킹 지표 : 소비자경기조사(18개) 및 기업경기조사(36개)	46
〈표 2-2〉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47
〈표 2-3〉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52
〈표 2-4〉	CSI 패널유지율	65

그림목차

〈그림 1-1〉 조사 흐름도	5
〈그림 1-2〉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체계	16
〈그림 1-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21
〈그림 2-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44
〈그림 2-2〉 국내총생산(GDP)	48
〈그림 2-3〉 실질 GNI	48
〈그림 2-4〉 민간소비증감률	49
〈그림 2-5〉 장단기금리차	49
〈그림 2-6〉 국내총생산(GDP)	50
〈그림 2-7〉 실질 GNI	50
〈그림 2-8〉 민간소비증감률	51
〈그림 2-9〉 장단기금리차	51
〈그림 2-10〉 국내총생산(GDP)	53
〈그림 2-11〉 실질 GNI	54
〈그림 2-12〉 민간소비증감률	54
〈그림 2-13〉 설비투자증감률	54
〈그림 2-14〉 재고순환지표	55
〈그림 2-15〉 구인구직비율	55
〈그림 2-16〉 장단기금리차	55
〈그림 2-17〉 제조업가동률지수	56
〈그림 2-18〉 국내총생산(GDP)	57
〈그림 2-19〉 실질 GNI	57
〈그림 2-20〉 민간소비증감률	57
〈그림 2-21〉 설비투자증감률	58

〈그림 2-22〉	재고순환지표	58
〈그림 2-23〉	구인구직비율	58
〈그림 2-24〉	장단기금리차	59
〈그림 2-25〉	제조업 가동률지수	59
〈그림 2-26〉	소비자태도지수	60
〈그림 2-27〉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	61
〈그림 2-28〉	전 산업 업황지수	63
〈그림 3-1〉	2011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69
〈그림 3-2〉	2011년 4/4분기 생활형편지수	70
〈그림 3-3〉	2011년 4/4분기 경기판단지수	71
〈그림 3-4〉	2011년 4/4분기 구입태도지수	72
〈그림 3-5〉	2011년 4/4분기 소비지출지수	73
〈그림 3-6〉	2011년 4/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74
〈그림 3-7〉	2011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	75
〈그림 3-8〉	2011년 4/4분기 물가전망	76
〈그림 3-9〉	가계부채 유무	77
〈그림 3-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77
〈그림 3-11〉	부채상환 형태	78
〈그림 3-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78
〈그림 3-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79
〈그림 3-14〉	2011년 4/4분기 업황지수	80
〈그림 3-15〉	2011년 4/4분기 매출액지수	81
〈그림 3-16〉	2011년 4/4분기 경상이익지수	82
〈그림 3-17〉	2011년 4/4분기 자금사정지수	83

〈그림 3-18〉 2011년 4/4분기 종사자수지수	84
〈그림 4-1〉 2012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87
〈그림 4-2〉 2012년 1/4분기 생활형편지수	88
〈그림 4-3〉 2012년 1/4분기 경기판단지수	89
〈그림 4-4〉 2012년 1/4분기 구입태도지수	90
〈그림 4-5〉 2012년 1/4분기 소비지출지수	91
〈그림 4-6〉 2012년 1/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92
〈그림 4-7〉 2012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	93
〈그림 4-8〉 2012년 1/4분기 물가전망	94
〈그림 4-9〉 가계부채 유무	95
〈그림 4-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95
〈그림 4-11〉 부채상환 형태	96
〈그림 4-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96
〈그림 4-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97
〈그림 4-14〉 2012년 1/4분기 업황지수	98
〈그림 4-15〉 2012년 1/4분기 매출액지수	99
〈그림 4-16〉 2012년 1/4분기 경상이익지수	100
〈그림 4-17〉 2012년 1/4분기 자금사정지수	101
〈그림 4-18〉 2012년 1/4분기 종사자수지수	102
〈그림 5-1〉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105
〈그림 5-2〉 2012년 2/4분기 생활형편지수	106
〈그림 5-3〉 2012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	107
〈그림 5-4〉 2012년 2/4분기 구입태도지수	108
〈그림 5-5〉 2012년 2/4분기 소비지출지수	109

〈그림 5-6〉	2012년 2/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110
〈그림 5-7〉	2012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	111
〈그림 5-8〉	2012년 2/4분기 물가전망	112
〈그림 5-9〉	가계부채 유무	113
〈그림 5-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113
〈그림 5-11〉	부채상환 형태	114
〈그림 5-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114
〈그림 5-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115
〈그림 5-14〉	자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116
〈그림 5-15〉	학교급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16
〈그림 5-16〉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117
〈그림 5-17〉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감 여부	117
〈그림 5-18〉	방과후 학습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	118
〈그림 5-19〉	토요휴업일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	118
〈그림 5-20〉	2012년 2/4분기 업황지수	119
〈그림 5-21〉	2012년 2/4분기 매출액지수	120
〈그림 5-22〉	2012년 2/4분기 경상이익지수	121
〈그림 5-23〉	2012년 2/4분기 자금사정지수	122
〈그림 5-24〉	2012년 2/4분기 종사자수지수	123
〈그림 6-1〉	2012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127
〈그림 6-2〉	2012년 3/4분기 생활형편지수	128
〈그림 6-3〉	2012년 3/4분기 경기판단지수	129
〈그림 6-4〉	2012년 3/4분기 구입태도지수	130
〈그림 6-5〉	2012년 3/4분기 소비지출지수	131

〈그림 6-6〉	2012년 3/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132
〈그림 6-7〉	2012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	133
〈그림 6-8〉	2012년 3/4분기 물가전망	134
〈그림 6-9〉	가계부채 유무	135
〈그림 6-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135
〈그림 6-11〉	부채상환 형태	136
〈그림 6-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136
〈그림 6-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137
〈그림 6-14〉	2012년 3/4분기 업황지수	138
〈그림 6-15〉	2012년 3/4분기 매출액지수	139
〈그림 6-16〉	2012년 3/4분기 경상이익지수	140
〈그림 6-17〉	2012년 3/4분기 자금사정지수	141
〈그림 6-18〉	2012년 3/4분기 종사자수지수	142
〈그림 7-1〉	서울의 산업생산	146
〈그림 7-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147
〈그림 7-3〉	서울의 취업자수	148
〈그림 7-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149
〈그림 7-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	150
〈그림 7-6〉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151
〈그림 7-7〉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152
〈그림 7-8〉	서울의 내구재,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 지수	153
〈그림 7-9〉	서울의 업황지수	154
〈그림 7-10〉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155

<그림 7-11> 서울의 부문별 실적지수	156
<그림 7-12> 서울의 부문별 전망지수	157
<그림 7-13>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158
<그림 7-14>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159
<그림 7-15>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160
<그림 7-16>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16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조사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 중동 정세 변화 등에 의한 유가 불안,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이 필요함.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된 개발사업과 산업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서울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는 여전히 부족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연구 및 조사가 실시됨.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8년 3/4분기부터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or Consumer Survey Index), 기업체감경기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업황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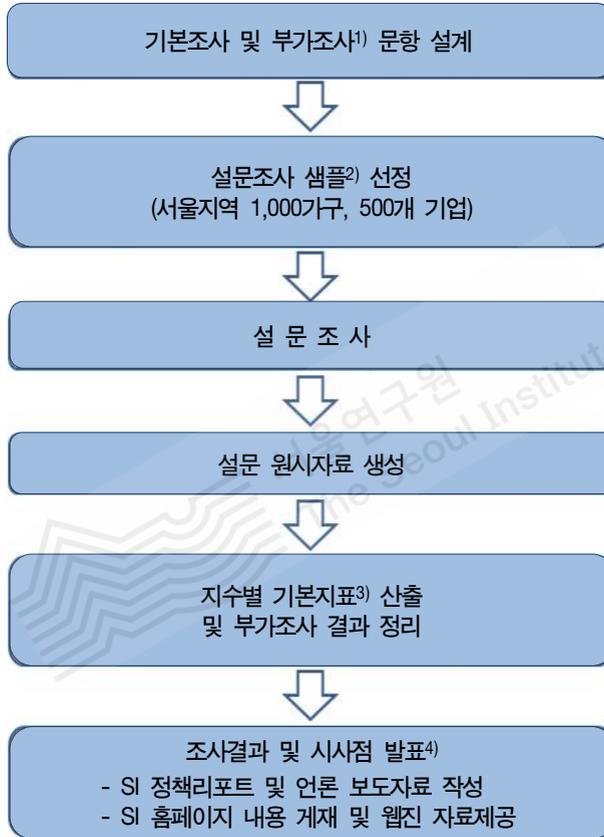
-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기업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경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체감 경기 및 전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지표 체계임.

- 또한,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는 가계와 기업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과 패널형태(CSI : 서울시 가계 1,000가구, BSI : 서울시 사업체 500개 업체)의 서베이 자료로 구축되기 때문에 행정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 정책수립,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외 부정기적으로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에 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서울시 가계 및 기업부분의 현안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제안 및 방안 제시가 가능함.

2. 연구 흐름

-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조사와 기업체감경기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세부지표를 분기 단위로 산출함.



〈그림 1-1〉 조사 흐름도

- 1) 부가조사 매분기 현안 이슈 선정
- 2) CSI 표본 유지율 88.2% (2012년 4/4분기 기준)
- 3) CSI 지수 8개, BSI 지수 7개 등 총 15개 지표 산출
- 4) 2011년 4/4분기 이후 현재까지 총 48회 언론보도

제2절 조사 방법

1. 표본 설계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부문 표본설계

-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69세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고 자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미혼가구는 제외함(<표 1-1> 참조).

〈표 1-1〉 가구주 연령별 구별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전체	61,544	564,096	814,576	654,814	421,881	2,516,911
종로구	667	6,876	11,837	9,719	8,376	37,475
중구	654	6,920	9,699	8,475	7,064	32,812
용산구	1,322	11,751	15,666	13,139	11,740	53,618
성동구	2,288	20,887	25,248	20,064	15,025	83,512
광진구	2,636	21,535	30,555	22,463	13,815	91,004
동대문구	2,152	19,059	28,147	25,165	19,242	93,765
중랑구	2,715	23,909	37,574	28,511	18,207	110,916
성북구	2,594	25,295	33,395	28,689	22,344	112,317
강북구	2,034	17,942	26,822	23,972	19,567	90,337
도봉구	2,099	21,387	33,250	24,953	15,600	97,289
노원구	3,434	38,406	56,292	39,013	22,338	159,483
은평구	2,892	26,360	36,120	29,523	21,958	116,853
서대문구	1,931	18,512	25,837	20,766	17,200	84,246
마포구	2,579	23,534	26,979	21,836	17,390	92,318
양천구	2,615	27,124	47,759	31,694	15,586	124,778
강서구	3,875	33,771	47,889	37,744	19,663	142,942
구로구	3,002	25,598	32,420	28,708	17,314	107,042
금천구	1,866	15,163	22,299	17,069	11,069	67,466
영등포구	2,829	25,611	31,060	26,167	17,804	103,471
동작구	2,682	23,079	28,496	26,186	19,027	99,470
관악구	3,930	30,128	35,850	33,177	23,430	126,515
서초구	1,833	19,784	31,130	27,178	14,813	94,738
강남구	2,578	24,253	45,637	37,586	18,334	128,388
송파구	3,656	32,989	52,375	40,516	19,586	149,122
강동구	2,681	24,223	42,240	32,501	15,389	117,034

- 이 연구의 소비자체감경기조사 산출을 위한 목표 표본을 보면, 서울 소재 1,000가구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표 1-2>,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표 1-3>과 같이 확정함.
- <표 1-1>을 이용하여 연령별 구별 비례에 따라 <표 1-2>와 같이 1,000가구를 25개 자치구별로 표본비율을 할당함.

<표 1-2>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전체	25	223	324	260	168	1,000
종로구	0	3	5	4	3	15
중구	0	3	4	3	3	13
용산구	1	5	6	5	5	22
성동구	1	8	10	8	6	33
광진구	1	9	12	9	5	36
동대문구	1	8	11	10	8	38
중랑구	1	9	15	11	7	43
성북구	1	10	13	11	9	44
강북구	1	7	11	10	8	37
도봉구	1	8	13	10	6	38
노원구	1	15	22	16	9	63
은평구	1	10	14	12	9	46
서대문구	1	7	10	8	7	33
마포구	1	9	11	9	7	37
양천구	1	11	19	13	6	50
강서구	2	13	19	15	8	57
구로구	1	10	13	11	7	42
금천구	1	6	9	7	4	27
영등포구	1	10	12	10	7	40
동작구	1	9	11	10	8	39
관악구	2	12	14	13	9	50
서초구	1	8	13	11	6	39
강남구	1	10	19	15	7	52
송파구	1	13	21	16	8	59
강동구	1	10	17	13	6	47

- 또한 권역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표 1-3>과 같이 구 단위 소표본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5대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표 1-4>와 같으며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따름.

<표 1-3>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전체	25	223	324	260	168	1,000
도심권	1	11	15	12	11	50
서북권	3	26	35	29	23	116
서남권	9	71	97	79	49	305
동남권	4	41	70	55	27	197
동북권	8	74	107	85	58	332

<표 1-4> 5개 권역 구분 기준

권역	해당 자치구
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북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남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동북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 조사방식은 전화설문조사로 진행하며 응답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로 한정하여 실시함.

2) 기업체감경기조사 부문 표본 설계

- 조사 모집단은 안정적인 지수 산출을 위해 서울지역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 8,530개 업체로 정함(<표 1-5> 참조).

- 조사 대비 목표 표본수가 500개로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업종별, 권역별 세부적인 지표 산출의 어려움이 존재함.
- 서울시 기업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업종별, 권역별 경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본 확대가 필요함.
- 조사내용은 유사지표를 산출하는 타 조사기관인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 기업은 지표의 대표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서울 소재 영리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조사대상 기업 지정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서울 소재 영리 기업 명부를 이용함.

<표 1-5> 조사대상기업의 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업종	규모					총합계
	50~299억	300~999억	1,000~4,999억	5,000~9,999억	1조 이상	
제조	1,227	434	259	36	51	2,007
건설	1,023	280	82	11	14	1,410
운수업	308	104	42	9	13	476
통신업	42	13	6	-	3	64
금융, 보험, 증권업	190	81	56	17	54	398
도소매업	1,653	478	199	26	25	2,381
음식숙박업	61	19	13	2	1	96
부동산 및 임대업	120	33	8	-	1	162
사업서비스업	948	211	76	7	6	1,248
기타	208	55	19	5	1	288
총합계	5,780	1,708	760	113	169	8,530p

- <표 1-5>의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목표 표본 500개 업체를 추출함.
- 방법론적으로 네이만(Neyman) 배분방식⁵⁾에 의해 <표 1-6>과 같이 대분류 산업기준 10개 업종, 5개 매출규모(50억~1조원 이상)로 500개 업체를

모집단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조정함.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10개 업종, 5개 매출 규모별로 세부지표 산출이 가능하나 통신업 등 몇몇 업체들은 표본의 유의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업종별 세부지표 산출에 한계가 있음.

○제조업은 서비스 부문에 비해 경기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제조업 비중을 더 크게 할당함.

-따라서 서울의 산업비중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표산출을 위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을 <표 1-6>과 같이 약 35% : 65%(=176 : 324)로 할당하여 지표를 산출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소비자채감경기조사와 달리 기업채감경기조사가 지역별 자료산출이 큰 의미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본 배분은 고려하지 않았음.

<표 1-6>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네이만(Neyman) 배분에 의한 표본 할당

(단위 : 개)

업종	규모					총합계
	50~299억	300~999억	1,000~4,999억	5,000~9,999억	1조 이상	
제조	33	27	69	21	26	176
건설	16	16	14	7	10	63
운수업	9	13	11	2	3	38
통신업	5	1	1	1	1	9
금융, 보험, 증권업	2	4	19	7	27	59
도소매업	14	6	19	5	12	56
음식숙박업	5	4	6	-	1	16
부동산 및 임대업	9	5	4	-	-	18
사업서비스업	16	11	12	1	2	42
기타	9	6	5	2	1	23
총합계	118	92	160	46	83	500

주 : 1) 실제 표본은 응답률을 고려하여 3배수를 추출함.

원표본응답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표본대체는 동일업종, 동일규모에 한해 대체함.

5) 네이만 배분법은 표본설계방법의 한 종류로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method) 중 최적 배분방법의 특수한 경우임.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추정량의 분산을 보다 작게 하여 변동의 정도를 높인 배분법임.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1) 소비자체감경기 부문

(1) 지수산출 방법

- 기본적으로 가구부문은 항목별로 개별지표를 산출하며 방법론적으로 서베이 조사에 사용빈도가 높은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표 1-7〉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점수	5점 서열 척도 배분	가중치
1	매우 나쁨	0
2	다소 나쁨	50
3	동일(적정 등)	100
4	다소 좋음	150
5	매우 좋음	200

-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ext{CSI} = (\text{'매우 나쁨'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나쁨' 응답빈도} \times 50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좋음' 응답빈도} \times 150 + \text{'매우 좋음'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 소비자체감경기지수의 산출 범위는 $0 \leq \text{CSI} \leq 200$ 이며 소비자체감경기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 체감경기지수를 해석할 때 산출된 수치는 가계가 느끼는 경기 변화에 대한 기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 분석 단위

- 서울시 경기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부 지표를 산출함.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 등이며 자세한 분류는 <표 1-8>과 같음.
 - 소비자체감경기지수의 원자료는 각 분석 단위별로 <표 1-8>과 같은 형태로 산출되어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DB에 엑셀 기반 모듈 형태의 DB로 보관되며 공식적인 지표 공표 시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됨.

<표 1-8>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기준	단위
권역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 6,000만원 이상, 무응답
가구주 직업	관리직/사무직, 전문직/기술직, 기능/노무/영업직, 자영업, 무직/주부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 대학원 이상
응답자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응답자 성별	남자, 여자
주거 형태	자가, 전세, 기타
가구원 수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2) 기업체감경기 부문

(1) 지수산출 방법

- 기업체감경기 부문의 지수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 이 방법은 지표산출 방법에서 서울연구원의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산출 방법과 동일하며 그 기준도 같아 서울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함.

-지표산출 방법은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표 1-9〉 기업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점수	5점 서열 척도 배분	가중치
1	매우 감소(부족, 악화, 곤란 등)	0
2	다소 감소(부족, 악화, 곤란 등)	50
3	동일(적정 등)	100
4	다소 증가(과잉, 호전, 원활 등)	150
5	매우 증가(과잉, 호전, 원활 등)	200

○기업체감경기지수(BSI)의 산출식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처럼 다음과 같이 계산됨.

$$BSI = (\text{'매우 감소'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text{'매우 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기업체감경기지수의 산출 범위는 $0 \leq BSI \leq 200$ 이며 기업체감경기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함.

(2) 가중치 부여 방법

- 기본적으로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매출액과 표본 집단의 업종별 매출액으로 가중치를 산출함.
- 응답률이 임의적(Random)이지 않다고 가정하고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함.
 -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응답률이 95%, 소기업은 응답률이 40%일 때, 표본분포가 기업규모에 대해 대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을 고려

- 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하여 응답률 가중치(w_{i1})와 업종별 매출액 규모 가중치(w_{i2})를 기준으로 최종 가중치를 부여함.
 -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매출액과 표본 집단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최종 가중치(w_i)를 부여하며 그 방법은 다음 수식과 같음.

$$BSI = \sum_{i=1}^n w_i \cdot BSI_i$$

응답률 가중치 : w_{i1}
 업종별 매출액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 w_{i2}
 최종 가중치 : $w_i = w_{i1} * w_{i2}$

(3) 분석단위

- 500개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개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업종별, 기업형태별 등으로 나누며 자세한 분류는 <표 1-10>과 같음.
 - 서울 소재 기업의 기업체감경기지표는 기술적으로 <표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별로 세부지표 산출이 가능함.
 - 그러나 표본이 500개인 관계로 업종, 기업형태, 수출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표 1-10> 기업체감경기지조사 결과 분석

기준	단위
권역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종업원수	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매출액	300억 이하, 301~1,000억, 1,001~5,000억, 5,001억~1조, 1조 초과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형태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여부	수출기업, 내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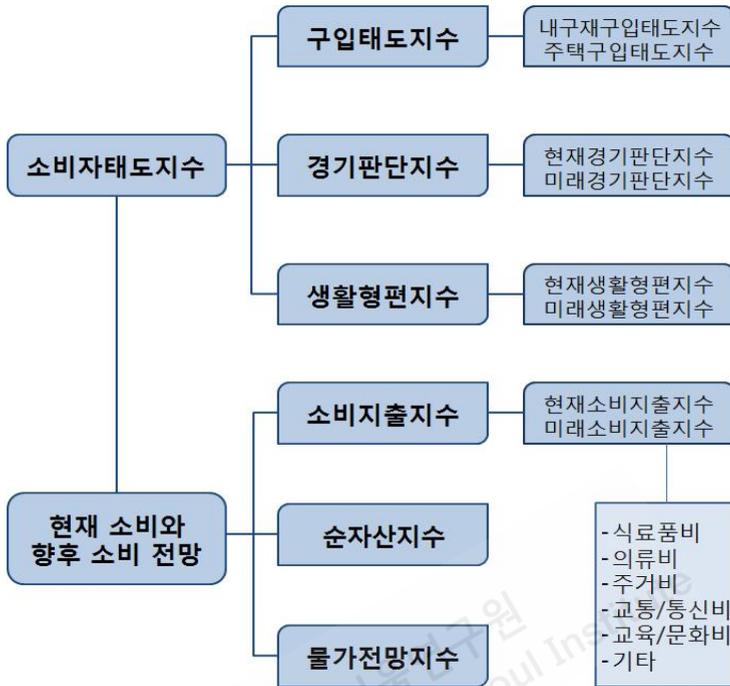
3. 설문조사 내용

- 소비자체감경기(CSI)와 기업체감경기(BSI) 모두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하여 매 분기 실시함.
 - 기본조사는 매 분기 동일한 설문 내용으로 조사되어 세부적인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문이 느끼는 체감경기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부가조사는 매 분기 현안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서울 지역경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한 분야의 구체적인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1) 기본조사

- 기본조사는 크게 소비자태도지수, 현재소비와 향후 소비전망 등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됨.
 - 매 분기 산출되는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전망의 기본조사와 관련된 지수는 <그림 1-2>, <표 1-11>과 같이 산출함.
 - 다양한 방면에서 가계부문의 체감경기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비자태도지수의 3개 세부지수, 현재와 향후 소비 전망과 관련된 3개 세부지수를 산출함.
 - 소비자태도지수는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지수를 함께 고려한 종합지수 형태로 산출됨.



〈그림 1-2〉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체계

- 서울연구원의 소비자체감경기조사는 타 기관(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소비자체감경기조사보다 소비 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 설계됨.
 - ‘내구재구입태도’와 ‘현재소비지출현황’은 타 기관에 없는 내용으로 서울지역의 소비 패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음.
 - 또한 서울의 경제구조가 전국과는 달리 소비위주에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연령별로 서울의 소비자체감경기지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표 1-11〉 타 기관 대비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지수의 비교

기관 (지수명)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 전망조사)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담당부서	서울경제연구원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경제통계국 분석통계팀
이용 가능시점	2008년 4/4분기	분기 : 1995년 3/4분기 월단위 : 2008년 9월 (통계청 조사와 통합)	1998년 12월~2008년 8월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이관)
대상지역	서울지역 1,000가구 (단, 미혼가구 제외)	서울, 6대 광역시, 기타 23개 도시	도시지역 2,000가구(20세 이상 기준자)
조사내용	소비자태도	소비자심리지수	-
	현재생활형편	현재생활형편	소비자평가 -생활형편
	미래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소비자기대 -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	현재경기판단	소비자평가-경기
	미래경기예상	향후경기전망	소비자기대-경기
	내구재구입태도	-	-
	주택구입태도	-	-
	현재소비지출	-	-
	미래소비지출 (항목별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소비지출전망 (항목별 : 의류비, 교육비, 외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문화비, 내구재, 국내·해외여행비, 의료·보건비)	소비자기대 (소비지출, 내구소비재구매, 외식·여가·문화)
	순자산	-	-
	고용상황전망	취업기회전망	-
	물가예상	6개월, 1년후 물가전망	-
	-	금리수준전망, 가계수입전망, 가계저축전망, 현재가계부채, 가계부채전망, 자산가치전망	-

주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는 2008년 8월 조사를 끝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로 통합됨.

(2) 부가조사

○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소비자체감경기와 관련되어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12〉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조사 기간	조사 주제
2008년 4분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한 소비자체감경기들의 경기 체감 상황
2009년 1분기	불황으로 발생한 부동산 시장 관련 상황
2009년 2분기	사교육 시장에 관련 상황
2009년 3분기	가구 저축 관련 상황
2009년 4분기	2009년 경제이슈 정리 및 금융위기로 인한 가구 경제 변화
2010년 1분기	거주 주택 관련 상황
2010년 2분기	에너지 절감 정책 인지 및 실천 상황
2010년 3분기	가계부채 관련 상황
2010년 4분기	가구저축조사
2011년 1분기	주택관련 조사
2011년 2분기	사교육비 지출조사
2011년 3분기	가계부채현황
2011년 4분기	가계부채현황
2012년 1분기	가계부채현황
2012년 2분기	가계부채현황, 사교육비 지출조사
2012년 3분기	노후준비 관련조사
2012년 4분기	주택관련조사

- 주제별 세부적인 부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13〉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조사 기간	조사 내용
2008년 4분기	IMF 경제위기 대비 현재 경제상황
	가계부담 증가의 원인
	언론 보도와 체감경기의 일치 정도
	예상 경기회복시기
	대출/공과금 연체경험
2009년 1분기	역전세난 상황·보증금 관련 임대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질문
	주택가격 전망
	재테크 수단
	올해 아파트 가격전망
2009년 2분기	사교육 유무, 최근 3개월간 평균 지출액
	우선시하고 있는 사교육 부문
	사교육 기관(학원, 과외 등) 위치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지출액
2009년 3분기	가구저축액, 형태, 목적
	가구저축액의 증감 여부
	가구저축률 감소 이유
	부채 주사용용도
2009년 4분기	2009년에 발생했던 일 13가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 중 가장 관심있고 인상깊었던 사업
	미국발 금융위기가 귀택의 살림살이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
	새해 소망
	저축률 감소이유
2010년 1분기	거주 주택종류
	거주 형태별 주택 자금 규모, 주택 자금 대출 여부
	향후 3년 이내 이사할 계획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2010년 2분기	현재 유가 동향 및 영향
	서울시 에너지절감정책 평가
	다양한 에너지절감정책에 대한 공감 및 실천 정도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지출액
2010년 3분기	부채 유무
	대출 기관 및 잔액, 형태
	주사용용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 추가 여유자금 필요여부
2010년 4분기	월평균 저축규모 및 저축률
	저축 유형 및 목적
	작년 대비 올해 저축 규모
	추가 저축액 규모 및 투자처
	저축률 감소이유

〈표 계속〉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조사 기간	조사 내용
2011년 1분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
	현재 주거형태 및 면적
	향후 10년후 살고 싶은 집의 유형 및 면적, 고려사항
	올해 아파트 가격전망
2011년 2분기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월평균 지출액 및 총액
	사교육 유형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지출액
2011년 3분기 이후	가계부채 유무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원리금 상환형태 및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부채 주사용용도
2012년 2분기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월평균 지출액 증감 및 총액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지출액
	방과후 학습참여와 토요일업일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감소 효과
2012년 3분기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 유형
	노후준비 비용
	노후준비 시작 연령
	노후 거주지역 계획
2012년 4분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
	현재 주거형태 및 주거비용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월평균 상환액
	향후 이사 계획

2) 기업체감경기조사

(1) 기본조사

-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업체감경기(BSI)의 기본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수는 다음 그림과 같음.
- 기본조사 부분은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업황지수, 매출지수, 경상이익 지수와 그 외 자금, 생산/설비, 제품, 종사자수 등 기업환경과 관련된 지수로 이루어짐.
- 기업체감경기조사는 현재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실적 지수와 1분기 이후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전망지수로 분류되어 조사됨.



〈그림 1-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표 1-14〉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체계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비고
업황 지수	-	현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전망
매출 지수	내수부문, 수출 부문	
경상이익 지수	-	
자금시정 지수	-	
생산/설비부문 지수	생산, 설비 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제품재고 지수	-	
종사자수 지수	-	

- 세부적인 지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실계는 타 기관(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은행)의 조사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됨.
- 사업체의 전반적인 경기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생산액, 생산규모, 내수·수출규모, 제품재고, 설비투자규모, 가동률, 경상이익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타 기관의 기업체감경기지표와 비슷하게 설계함.
- 다만, 고용 관련 통계를 기업활동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종사자수 항목을 포함함.
- 기타 기업활동과 관련된 현안사항은 부정기적으로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표 1-15〉 기관별 기업체감경기지수 비교

기관명 (지수명)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 전망조사)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전국경제인 연합회 (기업경기 동향조사)	대한상공 회의소 (기업경기 전망조사)	중소기업은행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담당부서	서울경제연구센터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경제조사팀	경제조사본부 경영조사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산출시점	2008. 4/4	2003. 01	1988. 01	2002. 1/4	1980. 1/4
조사 대상	서울 소재 기업 500개 업체	제조업(중분류 21개 업종) 및 비제조업(대분류 11개 업종)	산업별, 업종별로 매출액순 600대 업체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제조업체 1,485개사	종업원수 5~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 1,606개 업체
조사 내용	전반적인 경기	0	-	0	0
	생산액/생산규모	0	-	0	-
	내수규모	0	0	0	-
	수출규모	0	0	0	-
	제품재고	0	0	0	-
	설비투자규모	0	0	0	0
	가동률	0	-	0	0
	중사지수	-	-	0	-
	경상이익	0 (채산성)	0 (채산성)	0	0 (채산성)
	자금사정	-	-	0	0
	-	주문액, 신규수주액, 매출규모, 생산설비과부족, 구인사정	고용	판매가격, 원재료구입가격	수주, 판매, 고용, 경영애로요인

(2) 부가조사

○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함.

– 2008년 4분기 이후 최근까지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16〉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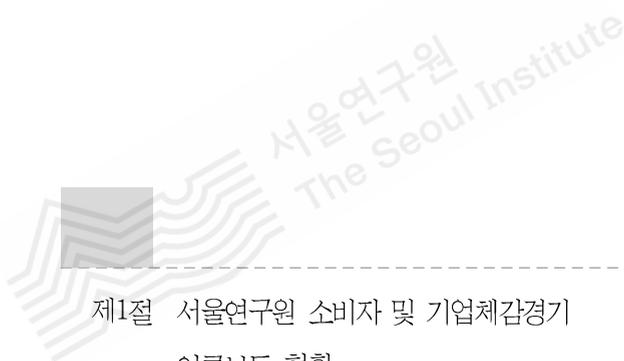
조사 기간	조사 주제
2008년 4분기	전 세계에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경기 체감 상황
2009년 1분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력 정책과 자금 조달 관련 상황
2009년 2분기	경기 회복 시점 전망 및 노사관계, 자금 조달 관련 상황
2009년 3분기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방안 및 경기회복 이후에 대한 준비 상황
2009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영조치
2010년 1분기	2010년 기업경영 관련조사
2010년 2분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 전망과 녹색성장 관련 정책 조사
2010년 3분기	자금 수요 및 조달 방법
2010년 4분기	현 경기 및 전망에 대한 이유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고용상황 및 전망조사
2011년 3분기	

– 분기별 실시된 부가조사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17〉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조사 기간	조사 내용	
2008년 4분기	1년 전 대비 현재, 현재 대비 1년 후 서울지역 경기 평가	
	IMF 경제위기 대비 현재 경제상황	
	언론 보도 관련 기업경기의 일치 정도	
	예상 경기회복시기	
	최근 경기와 관련된 투자 유형, 4/4분기 자금조달 경로별 비중 변화	
2009년 1분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정책	
	인력정책, 평균 근로 시간	
	금리인하정책, 자금조달방안	
2009년 2분기	신성장동력사업	
	예상 경기회복시기	
	인력정책, 노사관계	
2009년 3분기	지출 부문 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조치 방안	
	경영애로사항	
2009년 4분기	향후 투자 규모 증감계획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영조치	
	2010년 인력채용 규모	
2010년 1분기	2010년에 신규사업 진출이나 업종변경 등의 계획	
	2010년 기업경영 관련조사	노사관계
		고용여건
자금 조달 방식		
2010년 2분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정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가치에 대한 공감 여부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공감 및 실천 여부	
	향후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2010년 3분기	자금조달 방법	
	향후 자금수요 규모	
	자산대비 부채비율	
2010년 4분기	현 경기상황에 대한 이유	
2011년 1분기	경기 전망에 대한 이유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전분기 대비 인력규모 변동 및 변동이유	
	다음 분기 채용계획 및 규모	
	인력채용의 애로사항	

제2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언론보도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제1절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
언론보도 현황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제 2 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언론보도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제1절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 언론보도 현황

1. 언론보도 실적

-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 조사 결과와 매년 상·하반기 서울 지역 경제 전망은 분기별로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책리포트’와 보도 자료 작성 등을 통해 연 4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대략 총 76회, 2011년 4/4분기 이후 총 48회에 걸쳐 연구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됨.
- 주로 경제나 종합일간지에 소비자태도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물가와 고용 전망 관련 이슈로 다루어짐.
-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나 정책리포트 발간 일자이후 언론에 신속하게 보도되며 주로 경제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됨.
- 언론보도의 형식은 그림, 표, 수치 위주로 인용하여 보도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 주요 일간지의 분기별 보도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012년 3/4분기

서울 시민·기업 체감경기 1분기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뉴스1
“서울경제 회복 불투명하다”	뉴스1
영업제한 직격탄…서울시 대형마트 ‘역성장’	이데일리
서비스 비중 높은 도시, 일자리가 흔들린다	이데일리
서울시·자치구 도시농업 추진부서 제각각	내일신문
올 2분기 서울실업자수 243만명…청년실업률 8.2%	이주경제
서울 실업자 243만명…5년새 약 20% ↑	연합뉴스
서울 ‘실업자’ 수 얼마나 되나 봤더니…금융위기 이전보다 심각	쿠키뉴스

2012년 2/4분기

서울研 “서울 하반기 성장률 2.5% 전망”	머니투데이
서울研 “올 하반기 서울 경제 2.5% 성장”	이데일리
서울研 “서울 하반기 2.5% 성장” 전망	매일경제
서울연구원,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발표	K모바일
서울연구원 “서울경제 하반기 회복세…성장탄력 약화”	SBS
서울研, 하반기 서울 경기…여전히 먹구름	뉴스스
하반기 서울 경제성장률 2.5% 전망…시정研 발표	뉴스토마토
서울研 “올 하반기 서울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	이주경제
서울研 “상저하저, 서울 경제 성장률 둔화 예상”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하반기 회복세…성장탄력 약화”〈시정研〉	연합뉴스
서울시 경기 하반기에도 먹구름	시민일보
2분기 소비지출 개선됐으나 물가상승으로 가계여건 ‘둔화’	메디컬투데이
서울 하반기 경제성장률 2.5% 예상	아시아투데이
유럽발 재정위기 하반기 서울시 경제성장률 글썽?	파이낸셜뉴스
서울연 “서울 경제성장 탄력 약화 일로”	뉴스1

2012년 1/4분기	
서울 체감경기 3년만에 최악	서울신문
서울 시민·기업 체감경기 3년래 최저	머니투데이
경기침체로 서울 식당 2만개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서울시민 소비심리 3년래 최악...기업환경 악화 지속	
서울의 봄은 언제...소비심리 아직 꿈꿈	한국일보
서울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하락	MTN
서울시민 체감경기 3년만에 최악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비자, 1분기 체감경기 하락	뉴스핌
서울시민 체감경기 '삭풍'	시민일보
서울 체감경기,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뉴데일리
1분기 서울시민 및 기업 체감경기 3년래 최악	건설경제신문
1분기 서울 소비자 체감경기 하락	한국경제TV
서울시민 체감경기 악화...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메디컬투데이
서울시민 체감경기 최근 3년 중 '최악'	아시아투데이
서울시민 체감경기 악화...소비자태도지수 3년래 최저	뉴스스

2011년 4/4분기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2.5%" 시정개발팀	쿠키뉴스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승할듯	파이낸셜뉴스
서울연구원 "내년 서울경제성장률 0.2%포인트 오를 듯"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2.5%...올해비 0.2%P↑"	매일경제
서울시 내년 경제성장률 2.5% 전망	아시아투데이
서울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하락	MTN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2.5%...올해비 0.2%P↑"	연합뉴스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2.5%" 시정개발팀	국민일보
서울시민 경기회복 기대감 다소 증가	머니투데이
내년 서울 경제성장률 2.5%...0.2%P↑	아시아경제

2. 언론보도 예시

○분기별 언론보도의 내용 및 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2012년 3/4분기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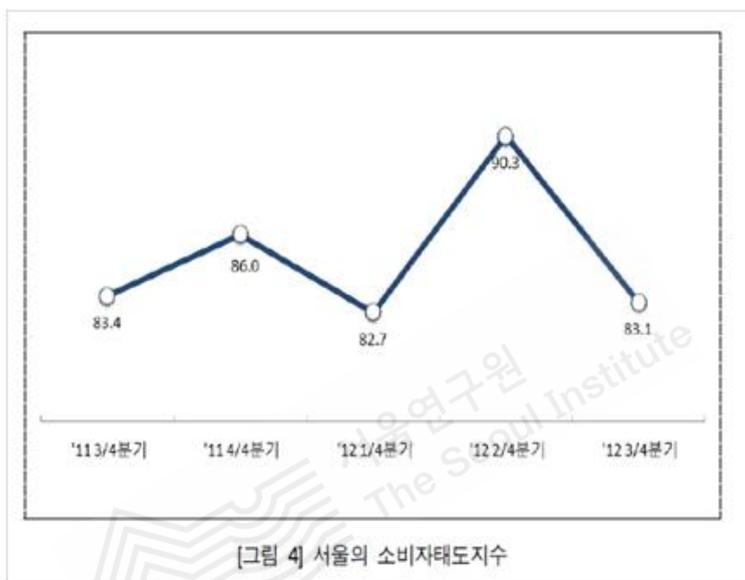
서울 시민-기업 체감경기 1분기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청년층 취업 4개월째 감소세...감소폭도 확대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입력 2012.09.17 14:38:44 | 최종수정 2012.09.17 14:38:25

기사소셜링크: [t](#) [f](#) [s](#)



©Naver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분기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판매지수도 4월 말부터 시행된 의무휴업에 따라 감소해 내수 정체 우려가 제기됐다.

청년층 취업지수는 2월부터 계속 감소하는데다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서비스 비중 높은 도시, 일자리가 흔들린다

서비스 기댄 서울·인천 울고 제조업 탄탄한 울산·경북 웃고
 "자영업자 타격...악순환 반복될 수 있어"

입력시간 :2012.08.27 08:2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백화점들이 한달 내내 세일을 해도 매출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요즘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 업종인데, 도시·지역별 일자리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건설업 등이 발달한 도시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을 웃돌았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반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의 경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실업자 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 많이 본 뉴스

추천뉴스

- [대선 D-16]박근혜, 다자-양자구도서 문재인에 4
- [대선 D-16] 文측 '취·임가 재산 4조' 공세에 淸.
- [車 돌보기]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수명이 있다?
- [전기차 어디까지 왔나]②전기차 시대를 기다리는.
- 'MB없는 대선' 淸 웃고 文 출고

지자체별 실업률 추이



시정研 "서울 하반기 성장률 2.5% 전망"

물가상승률은 3% 예상

머니투데이기상본기자 입력: 2012.09.26 11:15

종류: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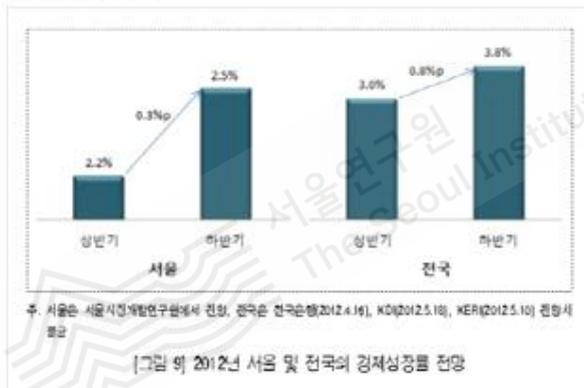
Tweet

소셜댓글: 0

하반기 서울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경제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5%로, 상반기 잠정치인 2.2%보다 살짝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정연가기 이용안내



이는 전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증가폭보다 0.5%포인트(p) 낮을 수 있다고 시정연은 예상했다.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 역시 상반기 대비 0.5%p 또는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국 전망치 3.4%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봄은 언제... 소비심리 아직 꿈꿈

1분기 경제 실적 부진... 실산 좋고 내수 경제
 재경 경기 3년 만에 최악... 기업경기 개선도 난감

한아릴기자 onashot@hk.co.kr

입력시간 : 2012.03.20 21:09:28 수정시간 : 2012.03.20 23:59:45



서울 소비자 태도 지수

(기준치 100은 전 분기와 동일한 상태, 즉 100보다 수치가 작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이다)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내구재	주택
2011년 1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3분기	83.4	85.0	103.2	50.4	87.1	91.4	92.4
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7월을 앞두고 많은 회사들

수출만이 호전코... 남관이 좋아

Hot 광고문의

서울 시민은 봄 들어 소비의 실산에서 모두 희망경기가 약화되고, 앞으로 더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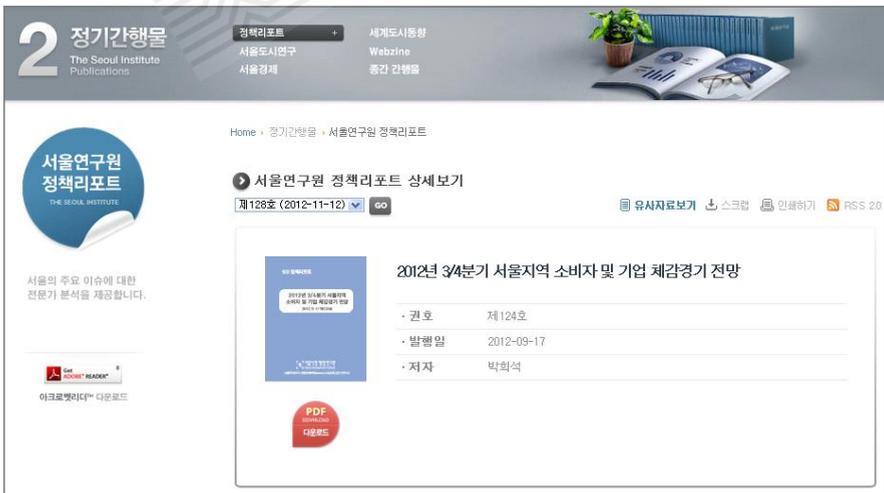
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등 20일 등 1월 서울 지역 실업률이 감소하고 내수는 경제침반 반등 고개를 향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앞으로 경기는 더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향후 소비심리 개선과 경기회복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3. 서울연구원 원내 연구결과 활용 현황

- 이 연구결과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리포트 서울경제, 대내외 메일링 서비스인 웹진 등에 활용됨.
- 연구보고서 및 정책리포트
 - 연구보고서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2011.11.30.



-정책리포트 124호(2012년 9월 17일자)



-정책리포트 118호(2012년 6월 25일자)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Institute'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정기간행물' (Publications) and '세계도시종합' (World City Overview).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circular logo for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Seoul Institute Policy Report) and a title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12 H2 Seoul Economy Outlook). Below the title, there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권호	제 118호
· 발행일	2012-06-25
· 저자	박희석

Additional details include '제128호 (2012-11-12)' for the next issue and a 'PDF 다운로드' (PDF Download) button.

-정책리포트 111호(2012년 3월 19일자)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Institute'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정기간행물' (Publications) and '세계도시종합' (World City Overview).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circular logo for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Seoul Institute Policy Report) and a title 'SDI 2012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SDI 2012 Q1 Seoul Consumer and Business Sentiment Outlook). Below the title, there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권호	제 111호
· 발행일	2012-03-19
· 저자	박희석

Additional details include '제128호 (2012-11-12)' for the next issue and a 'PDF 다운로드' (PDF Download) button.

○서울경제

-2012년 3월호 생생리포트 원고 게재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Institute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정기간행물' (Publications) and 'The Seoul Institute Publications'. Below this, there are links for '정책리포트' (Policy Report), '서울도시연구' (Seoul City Research), '세계도시동향' (World City Trends), 'Webzine', and '주간 간행물' (Weekly Publica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circular logo for '서울 경제' (Seoul Economy) and a list of articles for the March 2012 issue. The articles include: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 (Seoul City's Regional Major Industry Status and Trends),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 (Seoul City's Female Employment Status and Measures for Job Creation), and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 (SDI Seoul Area 4th Quarter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Survey and Economic Outlook).

-2011년 12월호 생생리포트 원고 게재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Institute website interface for the December 2011 issue. The layout is similar to the March 2012 issue, with the same navigation bar and main content area. The circular logo for '서울 경제' (Seoul Economy) is present. The list of articles for the December 2011 issue includes: '취업부문의 보육서비스 효율화 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Efficiency of Childcare Services in the Employment Sector),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 (Seoul City's Female Employment Status and Measures for Job Creation), and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 (SDI Seoul Area 4th Quarter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Survey and Economic Outlook).

-2011년 10월호 생생리포트 원고 게재

2

정기간행물
The Seoul Institute
Publications

정기리포트
서울도시연구
서울경제

세계도시동향
Webzine
종간 간행물





서울경제는 서울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경제 원안분석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행물입니다.

Home > 정기간행물 > 서울경제

2011년 10월호(2011-10-01) 스크랩 인쇄하기 RSS 2.0

2011년 10월호
발행일: 2011-10-01

[이달의이슈] 서울시 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신상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달의이슈] 한국과 일본의 인가구 라이프스타일 (박정현/I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 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전망 (박희석, 오동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팀)

[경제동향] 요약/경기/고용/부동산/금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록] 통계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아크로벳리더™ 다운로드

○서울연구원 웹진

-2012년 9월 24일 vol.101 이슈분석(2012년 9월 24일자)

서울연구원 Webzine 2012. 9. 24 vol.101

구독신청 | 지난호보기 | 기사검색 | 사이트맵 | 편집위원회

이슈분석

2012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2년 7월 전년 동기대비 4.7%를 기록하며 플러스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이는 2011년 7월 산업생산이 -18.4%로 최저점을 기록한 기저현상에 의한...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

지식/편사회에서 국가정책은 인적자원의 창의적 지식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제적 성과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실태조사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



서울시 소재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체들의 실태 및 경쟁력 관련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15개 기업체(엔지니어링협회 559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연구보고서

역세권 유흥별 보행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시가지의 62%를 차지하며 시민 일상생활의 중심적인 지하철 역세권을 대상으로 역세권의 지하철 이용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철역의 유흥을...

세계도시동향

[시카고]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보행계획안 발표
[모듈랜드 등]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접근성·내구성이 뛰어난 새로운 형태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타 도시동향

도시정책스케치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도농교류협력 사례
오늘날 발달과 상향의 가치가 중요시됨에 따라, 서울에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서울 중심의 지역발전 논의 속에서 활발하여 교류협력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하자...

연구인뉴스

제34회 서울물류연 토론회마당 개최
서울연구원-서울지방경찰청 공동연구 협력 체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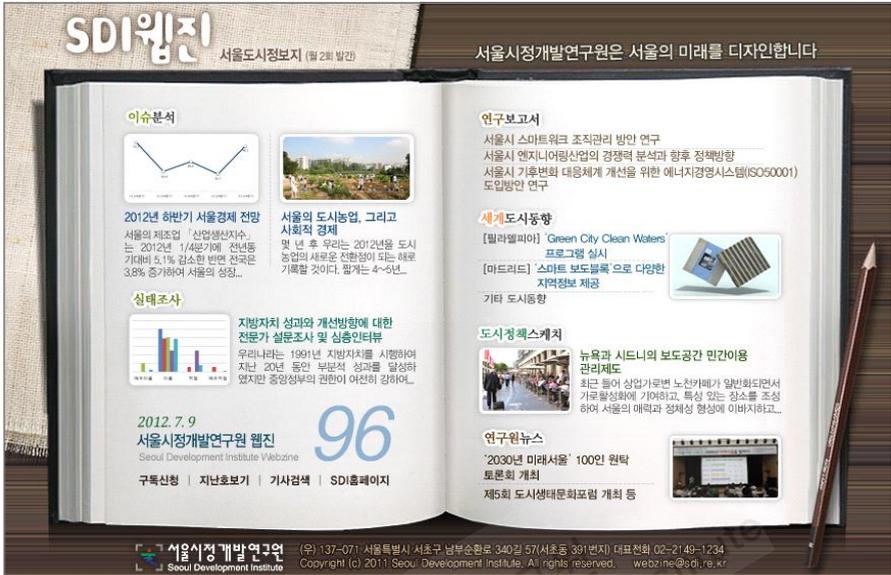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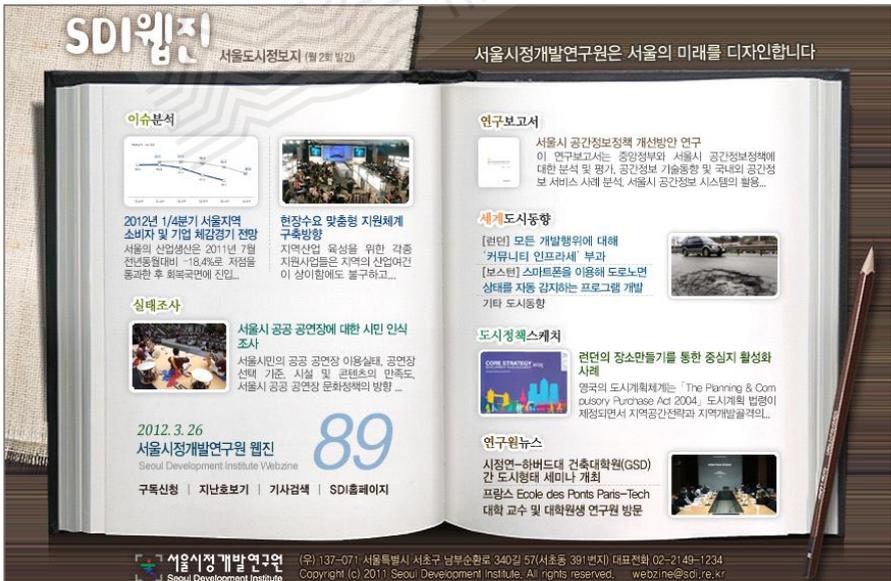
(우)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대표전화 02-2149-1234
Copyright (c) 2012 The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webzine@si.re.kr



-2012년 7월 9일 vol.96 이슈분석(2012년 7월 9일자)



-2012년 3월 26일 vol.89 이슈분석(2012년 3월 26일자)



○서울연구원 메일 홍보 현황

-약 4만개의 리스트 중 7~8천개는 서울시(본청, 구청)로, 나머지는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학교, 일반 회사, 시민 등으로 배포됨.

기관	
서울시(본청 및 구청)	7,000~8,000개
연구기관	1,500개
중앙행정기관	500~1,000개
학교	1,000~1,500개
일반 회사	2,000개
기타	3,000~4,000개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1. 개요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수진단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를 통해 작성된 각 지수는 서울지역 경기를 평가하는 주요 지역통계로서 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진단이 필요함.

-국가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은 작성통계에 대해 자체품질진단(1년 주기), 정기진단(5년 주기)을 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에서 2008년 4/4분기 이후 조사·작성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는 3년 정도 실시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서울연구원의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조사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 시차⁶⁾,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

사의 경기 반영성, 그리고 향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실시함.

2)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절차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체감경기조사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함.
 - 서울지역의 경기국면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속보성 있는 벤치마킹 통계가 없어 그 대안책으로 전국 단위의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와 벤치마킹 통계를 활용함.
 - 우선, 경기조사의 유용성을 평가한 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와 전국 단위 경기조사를 상호 비교하는 간접비교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1단계 : 경기 국면 평가를 위한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국면 판단 유용성 평가
 - 전국 단위로 조사 발표되는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경기조사와 경기반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 개별지수의 상관관계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소비자경기조사의 경기판단 유용성을 비교함.
- 2단계 :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국면 대응성 평가
 - 서울연구원의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를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 기관별 대표지수와 비교하여 경기의 방향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분석함.
- 3단계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유지 및 보완 방안 모색

6)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시차는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실물지표의 흐름을 비교할 때 경기 정·저점에서는 선행성, 회복 확장국면에서는 후행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소비자 및 체감 경기지수의 보완점이나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원내외 자문회의, 자료조사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논의 사항을 반영함.



〈그림 2-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2. 모니터링 결과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기준

- 전국단위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의 경기판단 유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기반영 벤치마킹 지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통계적 기준(통계적 적합성, 경기속보성)과 경기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후보 지표를 선정함.

기준1. 지표의 경기반영 및 대표성

기준2. 지표의 경기대응성

기준3. 통계작성의 일관성

기준4. 통계작성의 작성주기

-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총 36개의 지표를 경기국면 판단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킹 지표로 선정함.
 -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행지수’, 경기동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후행지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기본적인 벤치마킹 지표로 선정함.
 - 그 외에 개별 경제지표 중 대표적인 GDP(국내총생산)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변수로 사용함.
- 선정된 벤치마킹 지표 중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경기조사의 벤치마킹 지표는 18개, 기업경기조사는 36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조사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 벤치마킹 지표 : 소비자경기조사(18개) 및 기업경기조사(36개)

선택지표	소비자경기조사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	○
취업자(천명)(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실업률%(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고용률%(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
실질 GNI(계절조정, 전기비)(%)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	○
국내총투자율(%)	○	○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X	○
건설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X	○
선행종합지수(2005=100)	○	○
재고순환지표(%p)	X	○
기계수주액(선박제외, 불변)(십억원)	X	○
자본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건설수주액(실질)(십억원)	X	○
순상품교역조건(2005=100)	X	○
구인구직비율(%)	X	○
종합주가지수(1980.1.4=100)	○	○
금융기관유동성(실질)(조원)	X	○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	○
광공업생산지수(2005=100)	X	○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X	○
건설기성액(실질)(십억원)	X	○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2005=100)	X	○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	○
내수출하지수(2005=100)	X	○
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비농기취업자수(천명)	○	○
후행종합지수(2005=100)	○	○
생산자제품재고지수(2005=100)	X	○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	○
소비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	○
회사채유통수익률(%)	X	○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p<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p<0.01)

2) 전국 단위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검토 결과

(1)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

-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전국단위 소비자경기조사를 기준으로 각 벤치마킹 지표와의 상관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두 기관의 소비자경기조사 결과 모두 국내총생산(GDP), 실질국민총소득(GNI), 민간소비증감률과 같은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2〉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비교지표	유의한 지표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취업자(천명)(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실업률%(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고용률%(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
실질 GNI(계절조정, 전기비)(%)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국내총투자율(%)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
선행종합지수(2005=100)		
종합주가지수(1980.1.4=100)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비농가취업지수(천명)		
후행종합지수(2005=100)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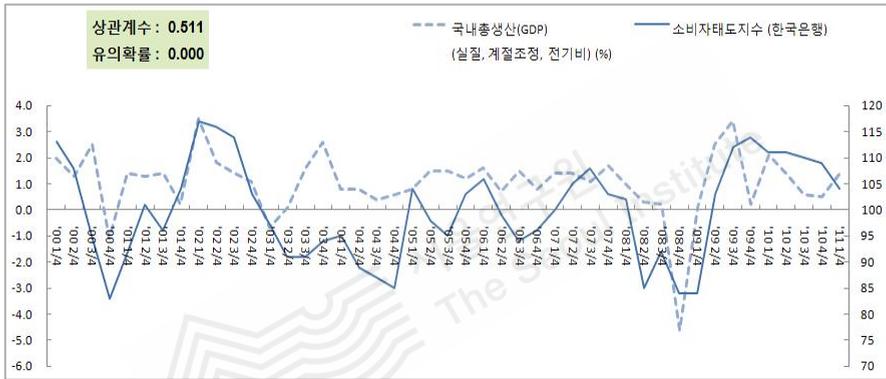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p \leq 0.01$)

- 한국은행 소비자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4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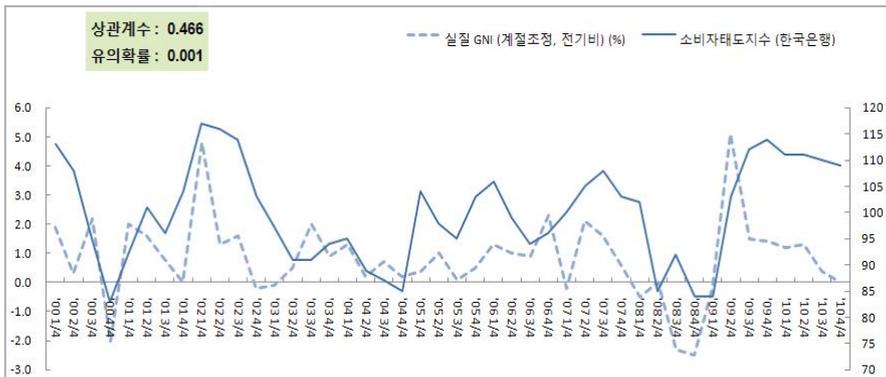
한국은행 C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0.511	0.000**
실질 GNI(계절조정, 전기비)(%)	0.466	0.001**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0.512	0.000**
정당기금리차(%p)	0.492	0.001**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p \leq 0.01$)



〈그림 2-2〉 국내총생산(GDP)



〈그림 2-3〉 실질 GNI



〈그림 2-4〉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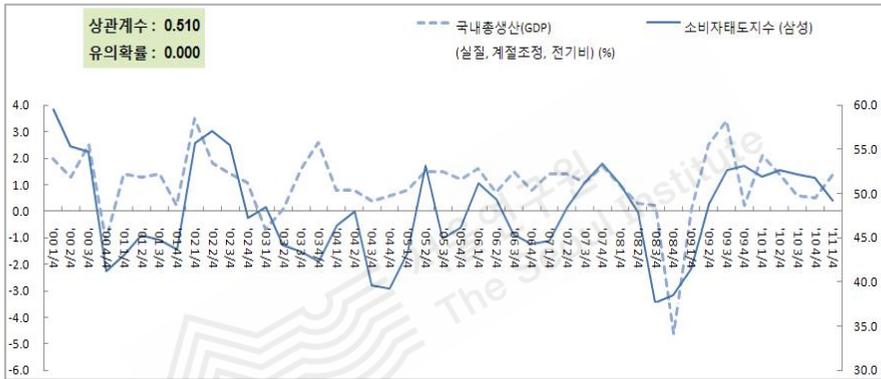
〈그림 2-5〉 장단기금리차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 역시 다음과 같은 4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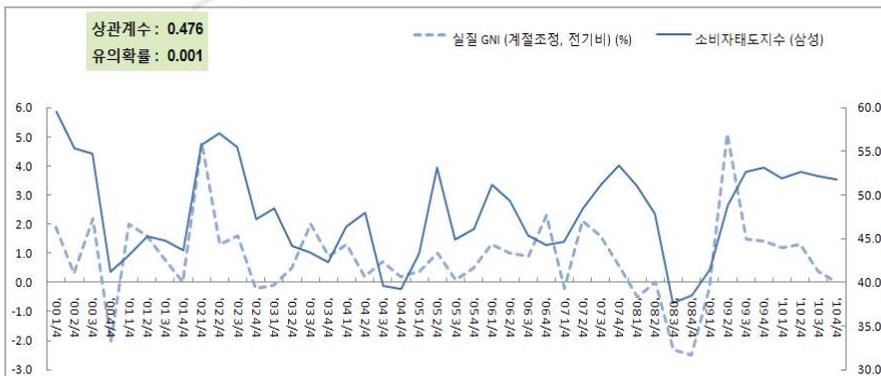
한국은행 C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0.510	0.000**
실질 GNI(계절조정, 전기비)(%)	0.476	0.001**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0.434	0.003**
장단기금리차(%p)	0.621	0.000**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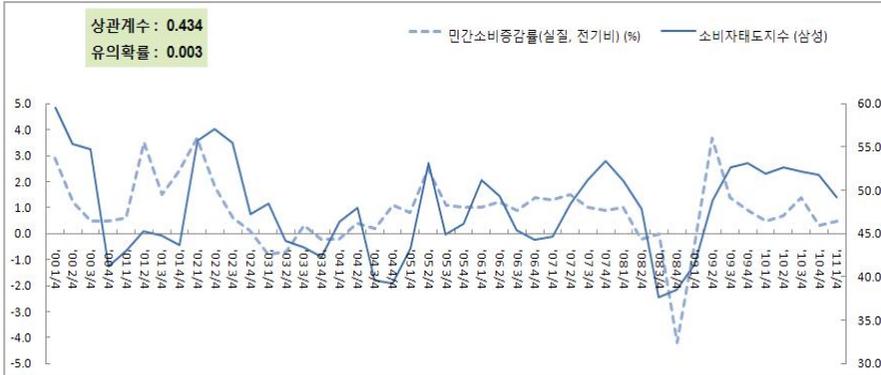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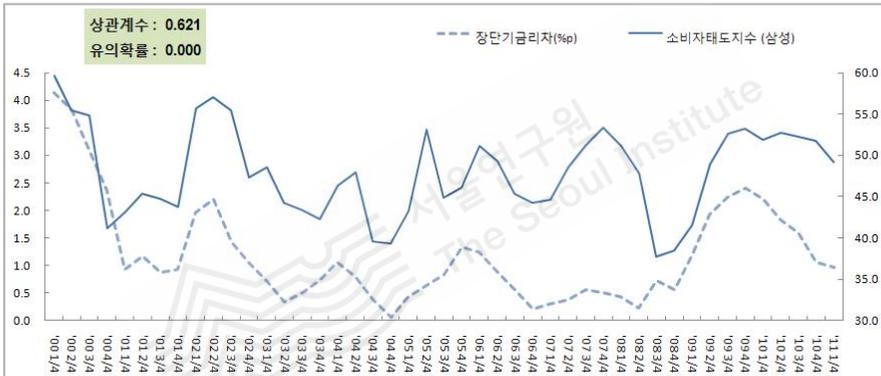
〈그림 2-6〉 국내총생산(GDP)



〈그림 2-7〉 실질 GNI



〈그림 2-8〉 민간소비증감률



〈그림 2-9〉 장단기금리차

(2)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

- 한국은행과 전국기업인연합회의 전국단위 기업경기조사를 기준으로 각 벤치마킹 지표와의 상관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비교지표	유의한 지표	
	한국은행	전경련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취업자(천명)(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실업률(%) (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고용률(%) (서울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
실질 GNI (계절조정, 전기비)(%)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국내총투자율(%)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	**
건설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선행종합지수(2005=100)		
재고순환지표(%p)	**	**
기계수주액(선박제외, 불변)(십억원)		
자본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건설수주액(실질)(십억원)		
순상품교역조건(2005=100)		
구인구직비율(%)	**	*
종합주가지수(1980.1.4=100)		
금융기관유동성(실질)(조원)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광공업생산지수(2005=100)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	**
건설기성액(실질)(십억원)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 제외)(2005=100)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내수출하지수(2005=100)		
수입액(실질)(백만달러)		
비농가취업자수(천명)		
후행종합지수(2005=100)		
생산자제품재고지수(2005=100)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소비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회사채유통수익률(%)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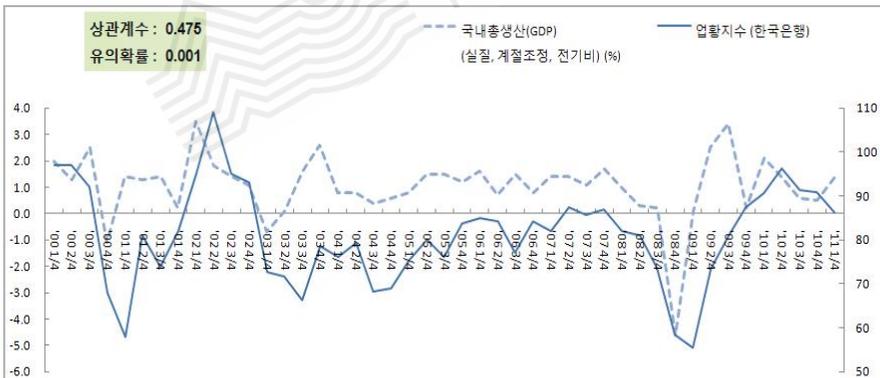
- 두 기관의 기업경기조사 결과 모두 국내총생산(GDP), 실질국민총소득(GNI), 민간소비증감률, 설비투자증감률, 제조업가동률지수와 같은 경기 추이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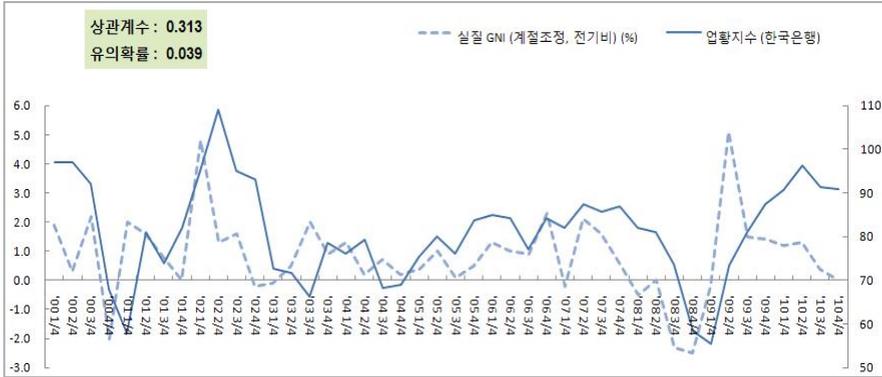
한국은행 B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0,475	0,001**
실질 GNI(계절조정, 전기비)(%)	0,313	0,039*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0,427	0,003**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0,582	0,000**
재고순환지표(%p)	0,664	0,000**
구인구직비율(%)	0,400	0,006**
장단기금리차(%p)	0,490	0,001**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0,486	0,001**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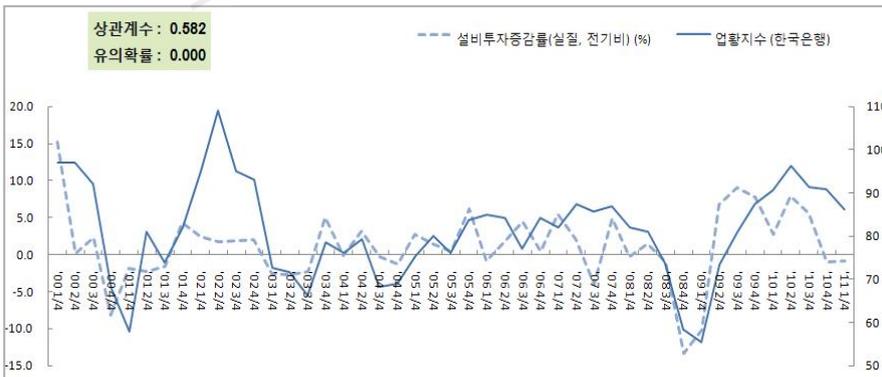
〈그림 2-10〉 국내총생산(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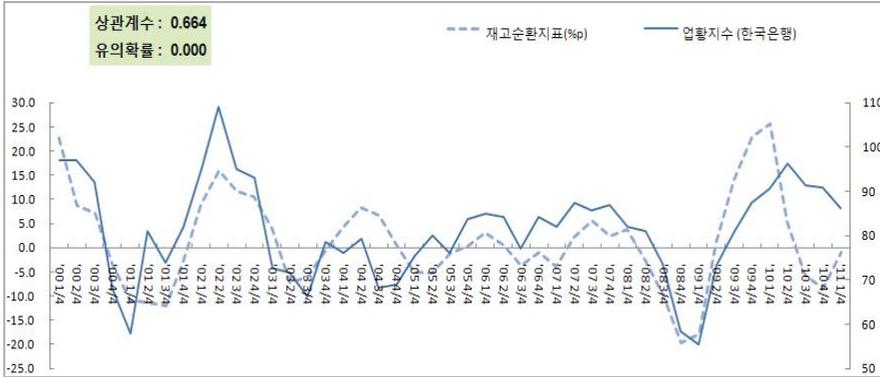
〈그림 2-11〉 실질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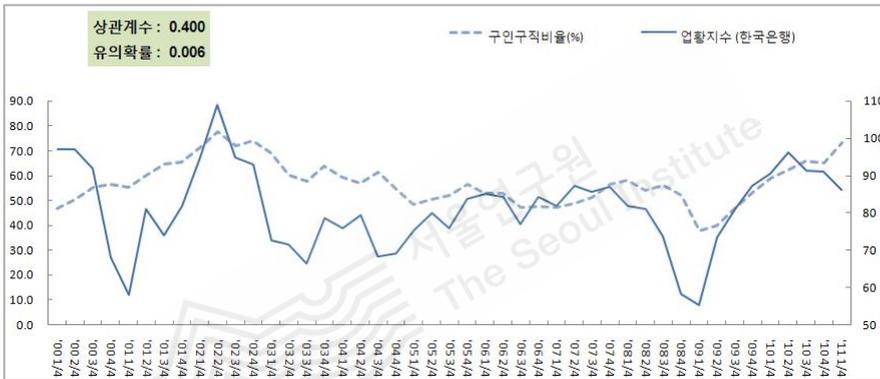
〈그림 2-12〉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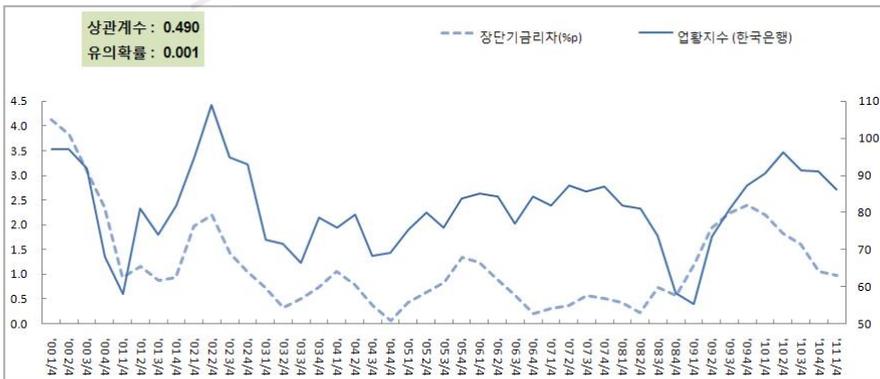
〈그림 2-13〉 설비투자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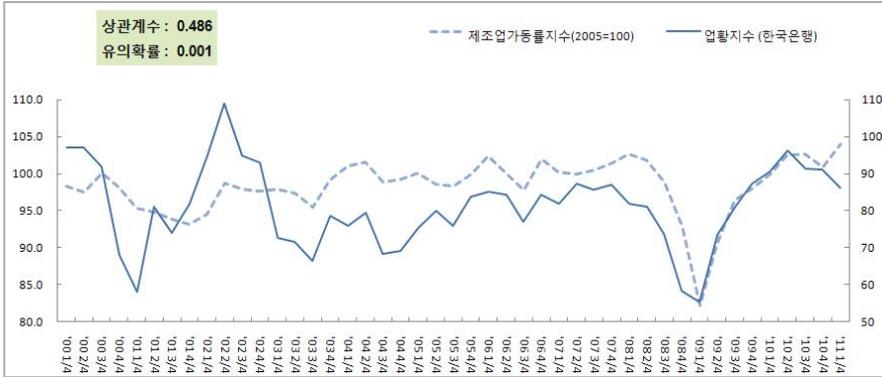
〈그림 2-14〉 재고순환지표



〈그림 2-15〉 구인구직비율



〈그림 2-16〉 장단기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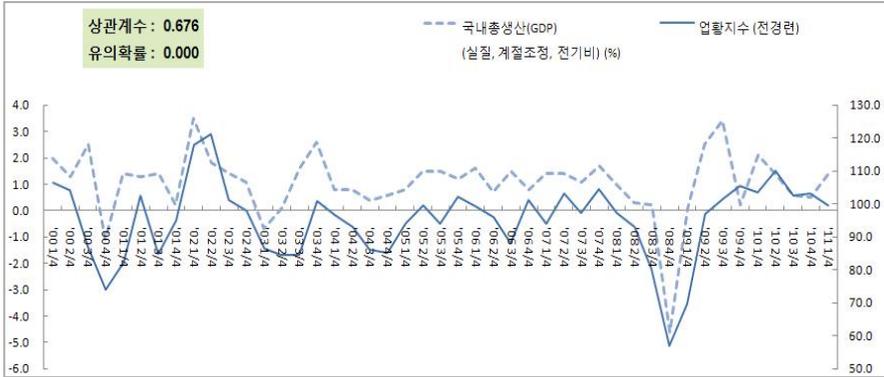
〈그림 2-17〉 제조업가동률지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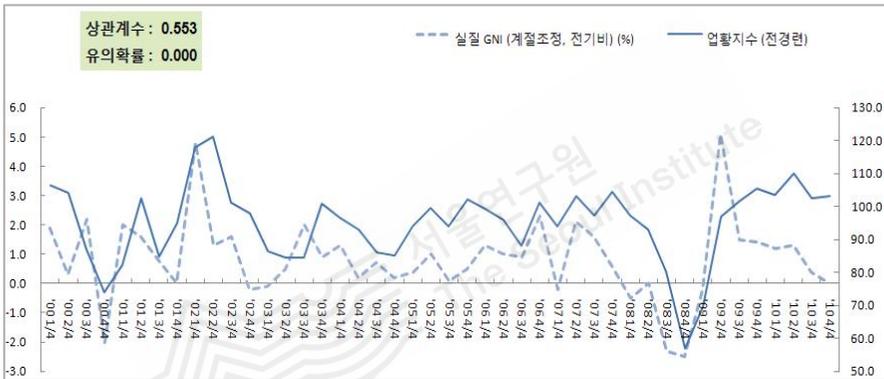
한국은행 B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0,676	0,000**
실질 GN(계절조정, 전기비)(%)	0,553	0,000**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0,639	0,000**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0,685	0,000**
재고순환지표(%p)	0,633	0,000**
구인구직비율(%)	0,317	0,034*
장단기금리차(%p)	0,336	0,024*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0,420	0,004**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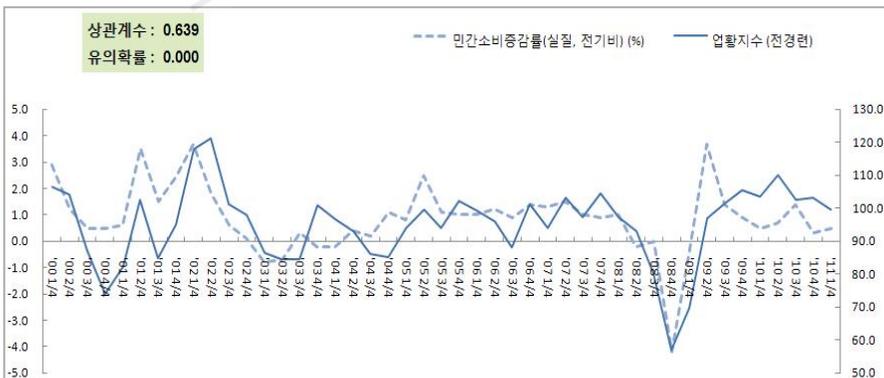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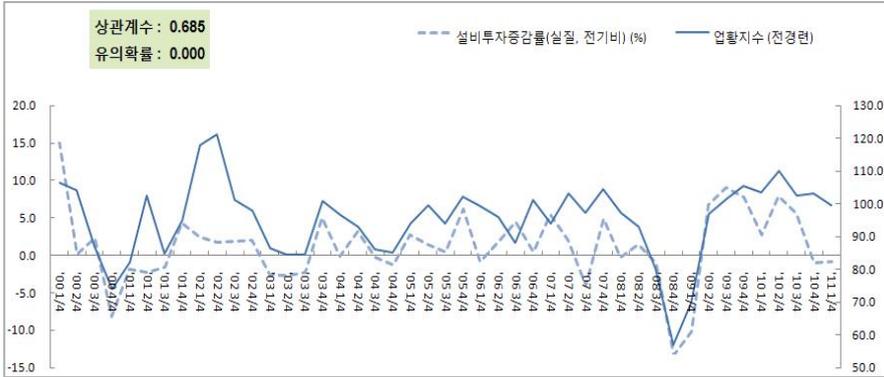
〈그림 2-18〉 국내총생산(GDP)



〈그림 2-19〉 실질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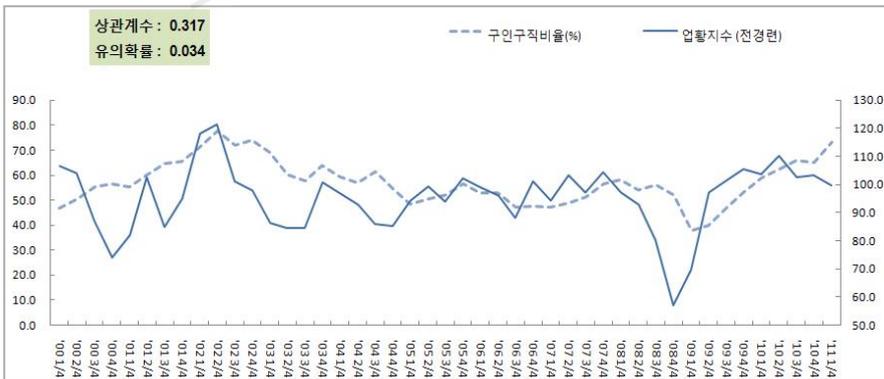
〈그림 2-20〉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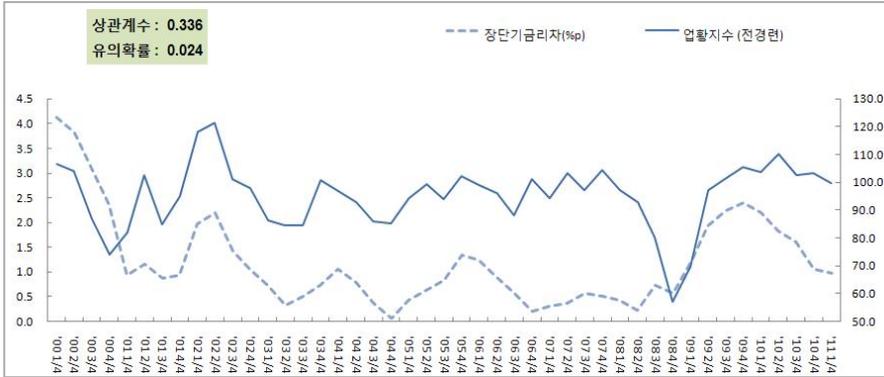
〈그림 2-21〉 설비투자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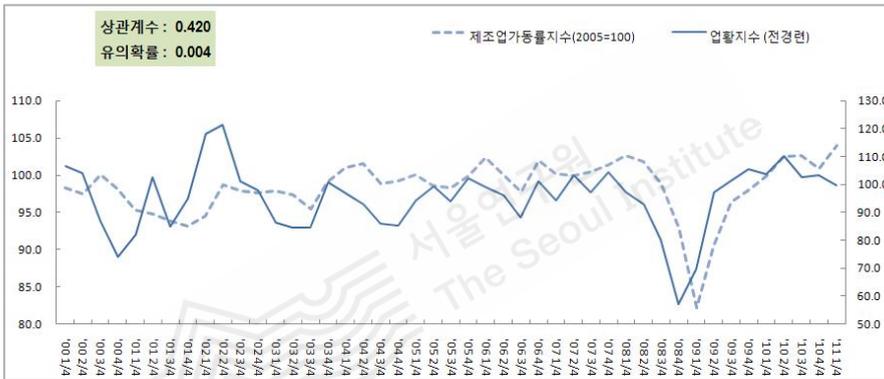
〈그림 2-22〉 재고순환지표



〈그림 2-23〉 구인구직비율



〈그림 2-24〉 장단기금리차



〈그림 2-25〉 제조업 가동률지수

3)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모니터링 결과

(1)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 모니터링

○기관별 소비자경기조사 지표비교는 서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 세 기관의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기관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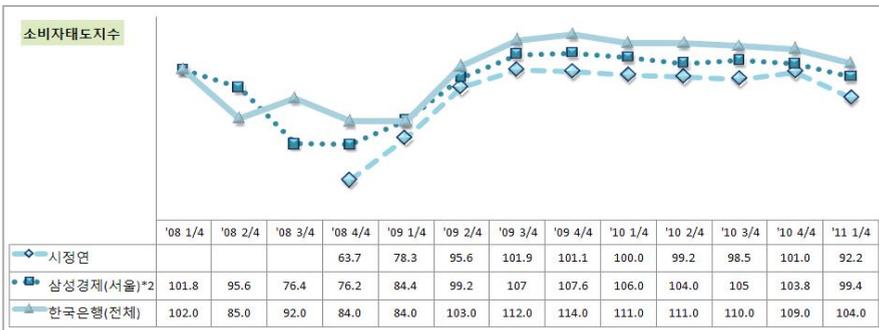
- 서울연구원 : 분기별 조사, 서울지역 대상
- 삼성경제연구소 : 전국지역 대상의 분기별 조사로 서울지역만 나타냄, 기준 값이 50으로 다른 조사의 기준치(100)와 맞춰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조사결과를 두 배로 하여 나타냄.
- 한국은행 : 2008년 1분기와 2분기만 분기별, 그 이후로는 월별로 조사함 (비교를 위해 3개월 단순평균으로 분기화). 소비자태도지수는 서울지역 구분이 없음.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연구원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국)
소비자태도지수(서울연)	0.989 (0,000**)	0.950 (0,000**)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그림 2-26〉 소비자태도지수

○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를 비교한 결과 역시 서울연구원의 소비자경기 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서울연)	0.987 (0,000**)	0.991 (0,000**)
향후경기판단지수(서울연)	0.978 (0,000**)	0.903 (0,001**)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그림 2-27〉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

(2)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기관별 기업경기조사 지표비교는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세 기관의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기관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서울연구원 : 분기별 조사, 서울지역 대상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 월별조사(비교를 위해 3개월 단순평균으로 분기화)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연구원의 기업경기조사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한국은행	전경련
업황-실적(전 산업, 서울연)	0,962 (0,000**)	0,948 (0,000**)
업황-전망(전 산업, 서울연)	0,955 (0,000**)	0,861 (0,003**)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p \leq 0.01$)





〈그림 2-28〉 전 산업 업황지수

(3)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와 기관별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경기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모두 경기반영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지자태도지수를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를 비교한 결과 각 지수의 경기흐름이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 역시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흐름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전면적 개편보다는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특성을 현재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및 패널유지율

-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의 개선방안 도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권역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공간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각 권역의 경기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 작성 및 발표방안 모색
 - 분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부가조사를 가계부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진단과 같은 조사로 변경하여 주기적 조사를 통한 부족한 관련 통계 보완 및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조사샘플, 지수산출 방법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특히 기업경기조사의 부가조사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임.
- 소비자 체감경기 가구 패널유지율은 2012년 4/4분기 현재 88.2%
 - 서울연구원 소비자 체감경기는 서울 소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연구 초기인 2009년 1/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패널유지율은 66.5% 유지
 - 그러나 조사 4년째인 2012년 4/4분기의 경우 패널 유지율은 88.2%로 안정적인 시계열 산출
 - 최근 2년간(2011년 1/4분기~2012년 4/4분기) 패널 유지율은 평균 86.3%

〈표 2-4〉 CSI 패널유지율

전 분기 대비 유지율(회수기준)	
조사 시기	유지율
09년 1분기	66.5%
09년 2분기	55.9%
09년 3분기	76.7%
09년 4분기	78.5%
10년 1분기	75.7%
10년 2분기	77.9%
10년 3분기	75.6%
10년 4분기	87.3%
11년 1분기	85.7%
11년 2분기	83.4%
11년 3분기	86.3%
11년 4분기	86.9%
12년 1분기	84.3%
12년 2분기	89.0%
12년 3분기	86.6%
12년 4분기	88.2%

제3장 2011년 4/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1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1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3 장

2011년 4/4분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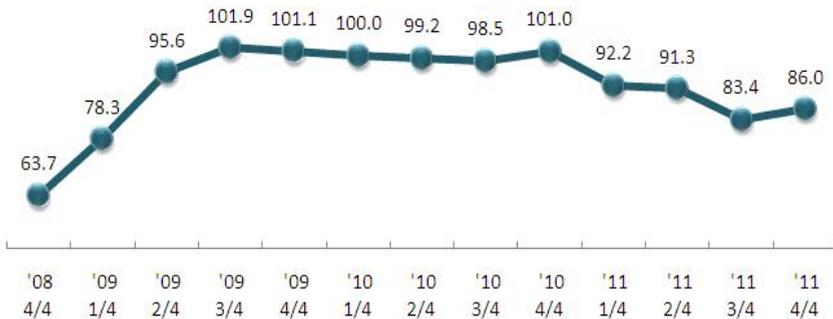
제1절 2011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 2011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2.6p 상승한 86.0을 기록하여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태도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전 소득계층에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여전히 80 미만의 낮은 지수를 기록함.



〈그림 3-1〉 2011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2011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0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값을 기록함.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수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은 67.0을 기록하며 다른 소득계층보다 13p~28p 정도 적어 살림살이가 매우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음.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2.7p 하락하며 100.5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이 현재보다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만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미래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2〉 2011년 4/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 2011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7.1,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2.2를 기록함.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6.7p, 5.1p 상승해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 경기판단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넘지 못함.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폭인 10.2p 상승한 반면, 5,001~6,000만원 소득계층에서는 0.4p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음.
- 유럽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물가상승 등 국내외 불안요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은 지난 3/4분기보다 서울의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3〉 2011년 4/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 2011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지난 3/4분기보다 4.0p 상승한 95.4를 기록하였지만 2011년 내내 기준치(100)를 하회함.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내구재구입태도지수도 높아지고 있으며, 6,0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만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넘기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2011년 4/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93.2를 기록하여 여전히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함.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4,001~5,000만원 계층을 제외한 3,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주택구입태도지수가 상승함.
- 특히 5,001~6,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는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4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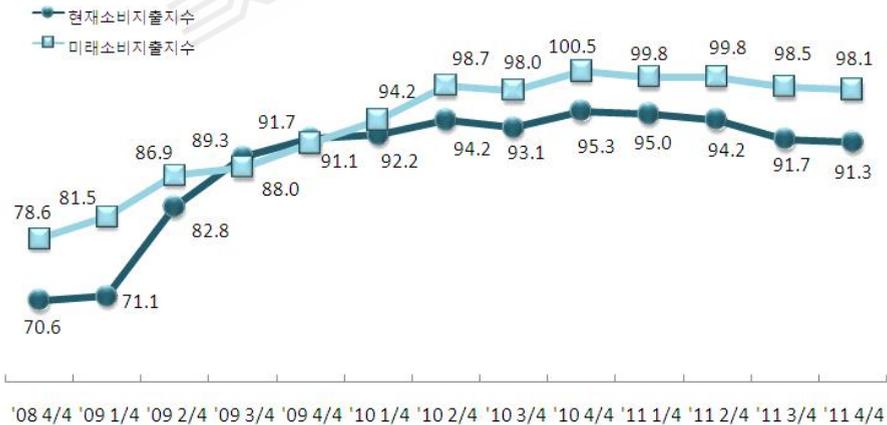


(그림 3-4) 2011년 4/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 2011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지난 3/4분기에 비해 각각 0.4p 하락한 91.3, 98.1을 기록함.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교육/문화비’와 ‘교통/통신비’ 항목이 각각 115.0, 107.5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고 ‘주거비’(99.5), ‘식료품비’(93.7), ‘기타’(92.7), ‘의류비’(80.5) 항목은 소비지출이 저조할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6,001만원 이상의 최상위 계층도 이번 분기에는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부진이 고소득 계층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5,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만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5〉 2011년 4/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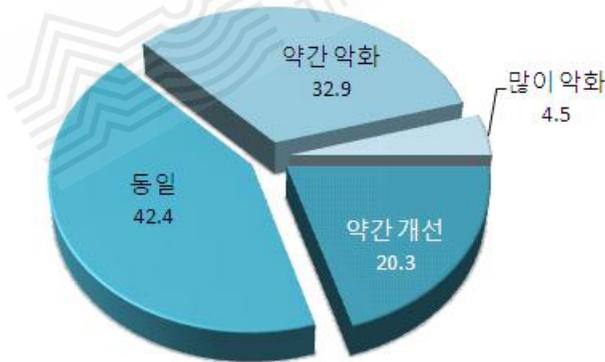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4.0으로 전분기대비 1.6p 하락하며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19.5%로 전분기(22.7%)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8.5%로 전분기(28.6%)와 비슷한 수준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2,001~3,000만원 계층에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순자산지수가 하락함.
 - 5,0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는 여전히 순자산지수가 100을 상회하며 순자산이 늘었다는 가구가 더 많아 중하위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임.



〈그림 3-6〉 2011년 4/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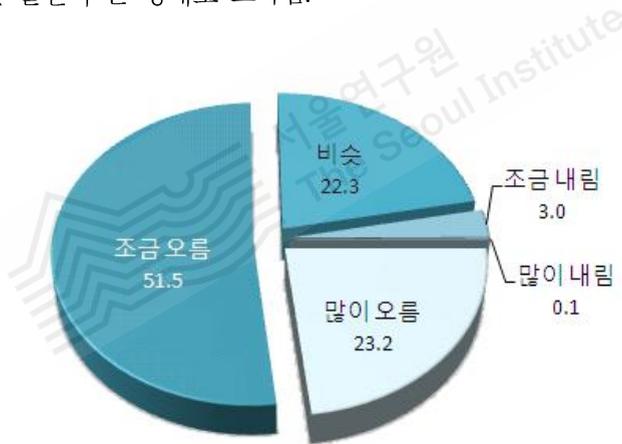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9.3으로 3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함.
 - 전분기대비 2.9p 상승하였지만 고용상황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0.3%,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37.4%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1% 높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 미만임.
 - 그 중 3,001~5,000만원의 중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5p 상승하며 고용심리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청년층과 40대 중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 대비 5p 이상 상승하며 지수가 하락한 50~60대보다 고용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7〉 2011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전망지수

- 2011년 4/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8.1p 하락한 147.3을 기록함.
 - 지난 분기에 비해 물가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된 듯 보이지만 공공요금 상승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음.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4.7%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1%에 불과함. 나머지 22.3%는 1년 전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지난 분기에 비해 물가전망지수가 떨어졌으나 여전히 145 이상의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이 큰 상태로 조사됨.



〈그림 3-8〉 2011년 4/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유무 및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60.9%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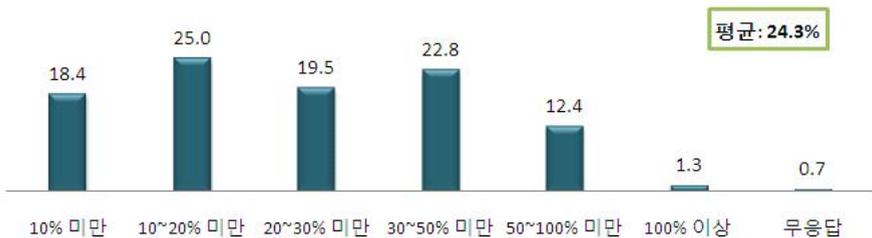
- 모든 소득계층의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가계부채 유무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4.3%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부채비율은 2,001~3,000만원대 계층에서 28.3%로 가장 높고,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9.7%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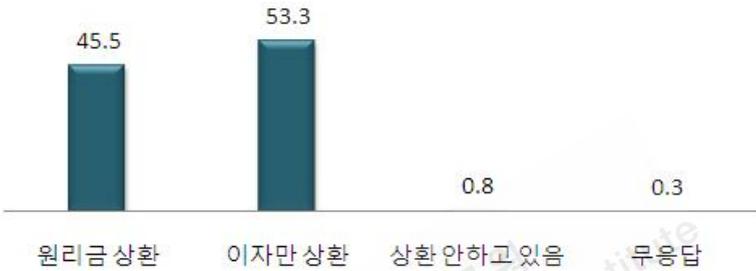


〈그림 3-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2) 원리금 상환 형태 및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부채가 있는 가구 중 53.3%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45.5%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특히 2,000만원 이하에서 그 비율이 67.1%로 다른 소득계층과 10%p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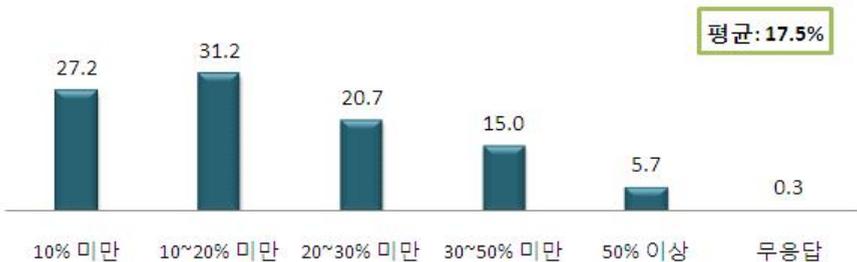


〈그림 3-11〉 부채상환 형태

○이들 가구들은 현재 소득의 17.5%를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6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의 ‘10~20% 미만’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비율이 3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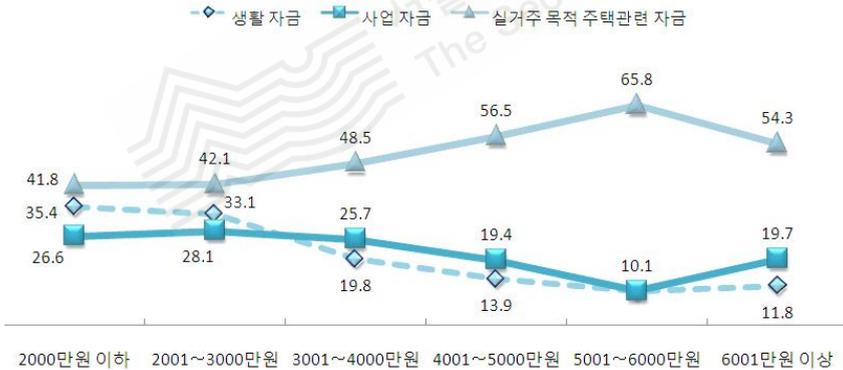
-한편,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수준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2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소득계층은 15% 내외로 비슷함.



〈그림 3-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3) 부채 주 사용목적

- 부채의 주 사용용도(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개보수 등의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생활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은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3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60대의 노년층에서도 24.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형편을 느끼고 있음.
 - 반면, 투자 목적의 ‘재테크’는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수준이 5,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연령대가 5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3-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제2절 2011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2011년 4/4분기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7.2p 하락한 83.9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17.5p나 급락한 80.7을 기록하고, 비제조업 업황지수도 86.2로 전분기대비 1.7p 하락하며 계속된 하락세를 보임.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8.0p, 7.2p 하락한 86.2, 90.5를 기록하며 계속적인 부진세를 보임.

○2012년 1/4분기 업황전망지수 역시 92.4로 전분기대비 4.0p 감소하고 있어 향후 기업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업황전망지수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값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4〉 2011년 4/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 2011년 4/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6.3p 하락한 89.5로 2분기 연속 부진세를 보임.
 - 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3.3p나 하락한 86.4로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된 반면, 비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1p 정도 증가한 91.7에 그쳐 모두 부진세를 보임.
 - 기업규모별 매출실적지수는 대기업이 전분기대비 4.9p 하락한 94.2를,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7.0p 하락한 88.2를 기록해 중소기업의 매출 실적이 더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1/4분기 매출전망지수도 91.7로 기준치를 하회하며 계속 경기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과 비제조업체 모두 2012년 1/4분기 각각 87.2, 95.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규모와 수출기업 구분에 상관없이 계속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 그 영향이 수출과 내수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5〉 2011년 4/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2011년 4/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9p 감소한 90.0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79.8로 전분기 102.3에서 22.5p 대폭 하락하여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되었고, 비제조업의 경우 전분기대비 8.5p 상승한 97.2를 기록했으나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함.

-대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97.6으로 전분기대비 2.8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4.7p 감소한 87.8로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2012년 1/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92.3으로 전분기대비 3.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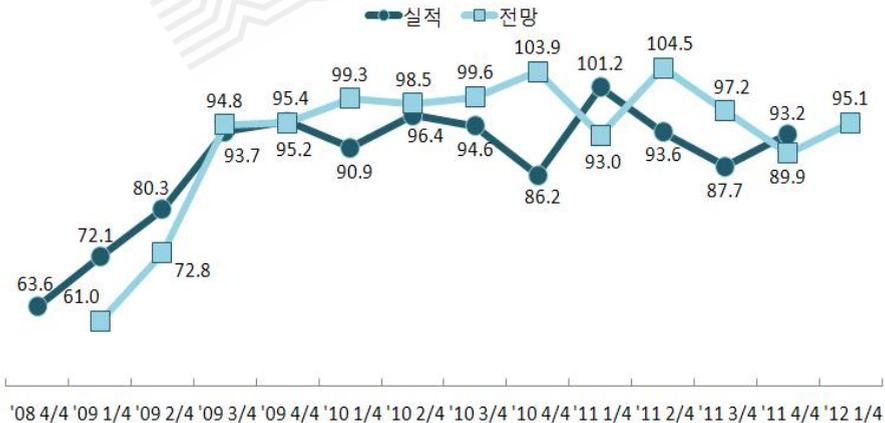
-경상이익전망지수는 대기업이 2.6p 하락한 95.0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3.7p 증가한 91.5로 예상되나 업종구분과 수출기업 구분에 상관없이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6〉 2011년 4/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 2011년 4/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5.5p 상승한 93.2로 3분기 연속 부진세를 이어감.
 - 제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는 87.3으로 전분기대비 1.9p 하락했으나 비제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0.3p 상승한 97.3으로 비제조업의 자금사정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95.6)는 전분기보다 5.4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92.5)는 전분기대비 7.4p상승했으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함.
- 2012년 1/4분기 전망치 역시 전분기대비 1.9p 증가한 95.1로 자금사정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의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2p 증가한 88.5로 자금사정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1.8p 증가한 97.4,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2.0p 증가한 94.5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7〉 2011년 4/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 2011년 4/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6p 하락한 92.2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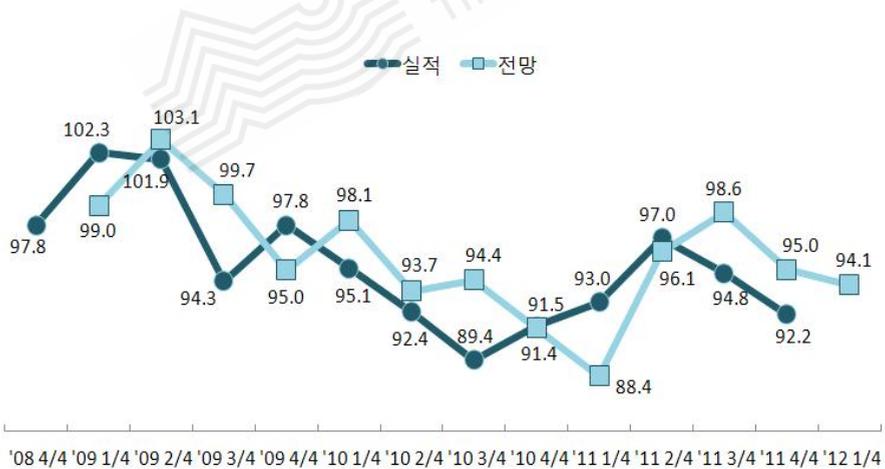
-업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3.8p 상승한 96.8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6.7p 하락한 88.9로 인력 부문이 더욱 악화됨.

-기업 형태별로는 전분기대비 대기업을 3.1p 증가한 96.5, 중소기업은 4.1p 하락한 91.0으로 여전히 종사자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도 전분기 대비 1.9p 감소한 94.1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종사자수전망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2.8p 상승한 99.6, 비제조업의 경우 1.3p 감소한 90.2로 조사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수전망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수출기업의 종사자수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12.2p 상승한 108.4로 나타나 수출기업의 종사자수 증가가 예상됨.



〈그림 3-18〉 2011년 4/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4장 2012년 1/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2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2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4 장

2012년 1/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2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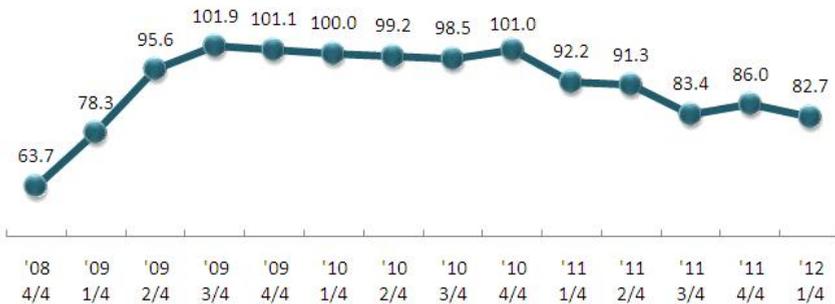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 2012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분기(86.0)보다 3.3p 하락한 82.7을 기록함.

- 이는 2009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2011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반영함.

- 특히 지속된 물가상승과 고용시장 악화, 가계채무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기회복 전망이 불확실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볼 때 소비심리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 2012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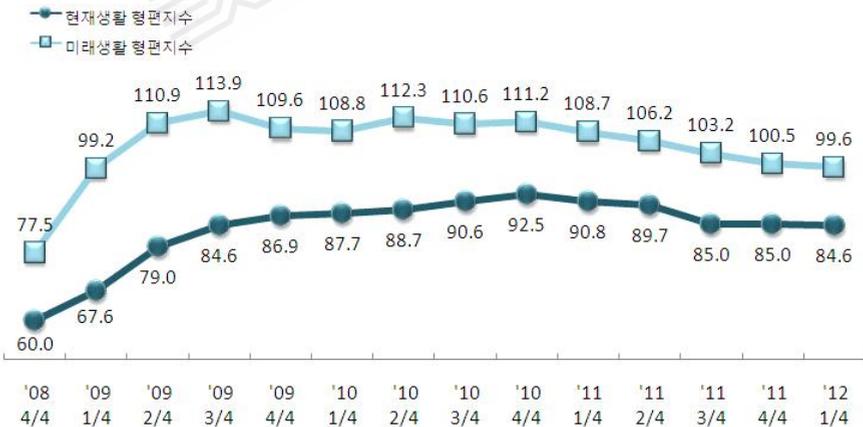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84.6으로 2011년 3/4분기 이후 보합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99.6을 기록함.

- 그동안 줄곧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을 이어온 미래생활형편지수가 부정적 전망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아 그만큼 소비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이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수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한데 비해, 5,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2~4p 이상 하락함.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편이며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간의 격차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커저소득층의 경우 향후 미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다소 클 것으로 보임.



〈그림 4-2〉 2012년 1/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 2012년 1/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6, 경기예상지수는 87.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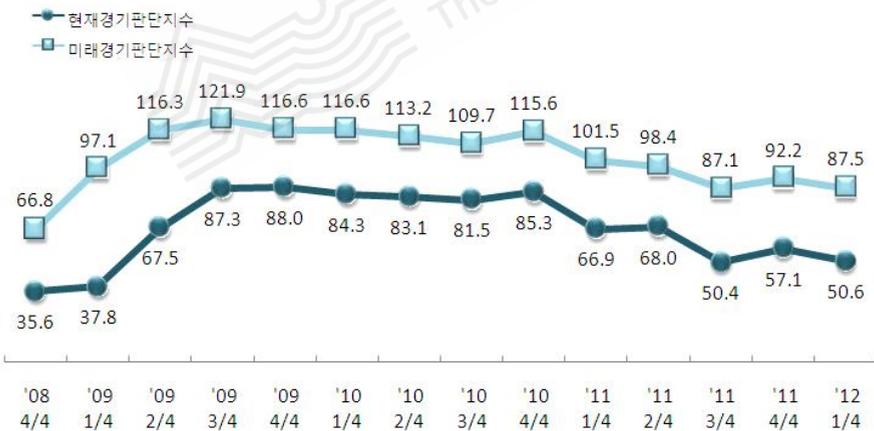
- 이는 전분기대비 각각 6.5p, 4.7p 하락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됨.

-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세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서울시민들은 지난 분기 때보다 서울의 경기 또한 악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보다 하락함.

- 특히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13p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임.

-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5,001~6,000만원 소득계층에서 3.8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수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4~10p 감소함.



〈그림 4-3〉 2012년 1/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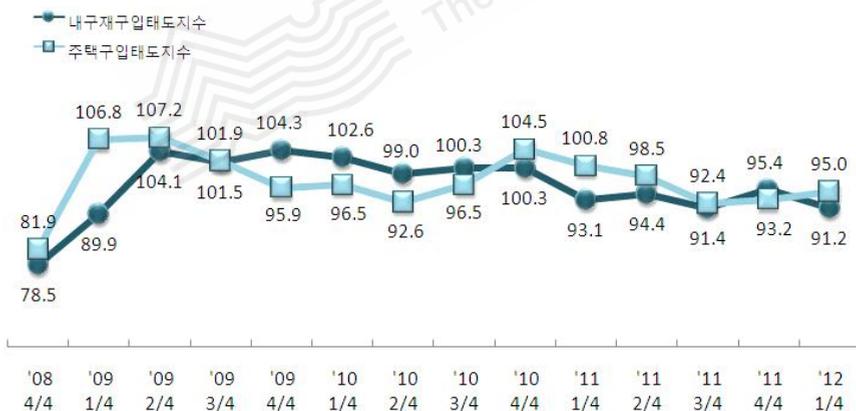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4.2p 하락한 91.2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한 반면,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1.8p 상승한 95.0을 기록함.

- 현 시점이 내구재를 구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택구입지수는 2011년 2/4분기부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현 시점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를 넘지 않음.

-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유일하게 2.6p 상승한 반면, 3,001만원 이상의 중상위층에서 전분기대비 5p 이상 하락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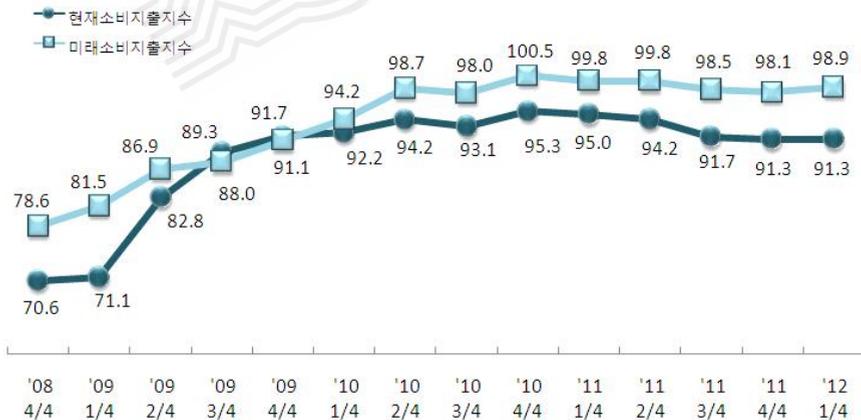
〈그림 4-4〉 2012년 1/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2012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보합인 91.3과 98.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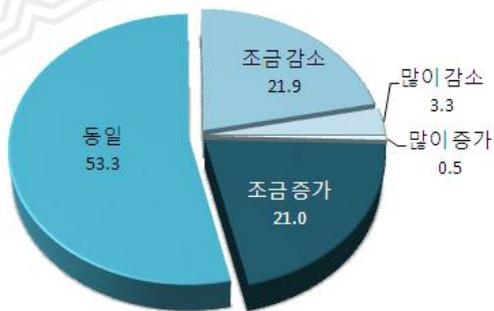
-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소비자가 더 많음.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비(114.4)와 교통/통신비(109.1), 주거비(100.2)항목에서만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음.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5,001~6,000만원 소득계층은 전분기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함.
- 미래소비지출지수의 경우에는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소득격차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



〈그림 4-5〉 2012년 1/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 2012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96.8로 전분기대비 2.8p 상승함.
 -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했으나 아직 100 이상의 지수를 회복하지 못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1.5%로 전분기(19.5%)에 비해 다소 증가함.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69.0%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5.2%로 전분기(28.5%)에 비해 감소함.
 -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41.1%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지목함.
-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4,001~5,000만원과 6,001만원 이상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폭은 각각 9.5p, 5.7p로 크게 증가하여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나타냄.



〈그림 4-6〉 2012년 1/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 2012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8.0으로 지난해 4/4분기보다 1.3p 하락함.

- 1년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며 고용심리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임.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19.7%,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40.8%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 미만임.

- 그 중 5,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2~6p 하락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고용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30대 이하와 40대 청·장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 대비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2012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에상지수

- 2012년 1/4분기 물가에상지수는 전분기대비 10.2p 떨어진 147.7을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심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올해 초 물가 안정세에 들어섰으나 오랜 기간 물가 안정의 실패와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1%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과 50~60대의 연령대에서 지수는 여전히 140 이상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



〈그림 4-8〉 2012년 1/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유무 및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58.6%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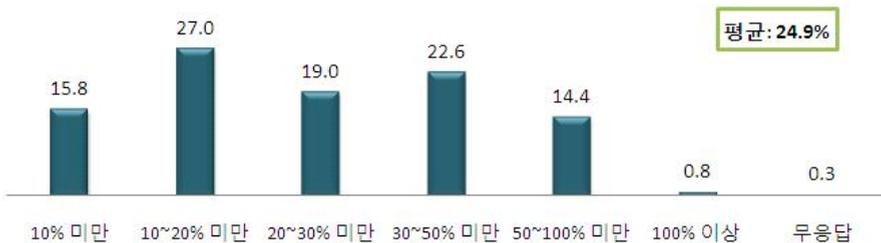
- 모든 소득계층의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가계부채 유무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4.9%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5,001만원 이상인 가구의 부채비율은 평균 20% 초반이지만,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은 30%에 달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2) 원리금 상환 형태 및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부채가 있는 가구 중 54.3%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44.1%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특히 2,000만원 이하에서 그 비율이 71.1%로 다른 소득계층과 10%p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11〉 부채상환 형태

○이들 가구들은 현재 소득의 16.4%를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64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의 ‘10~20% 미만’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비율이 3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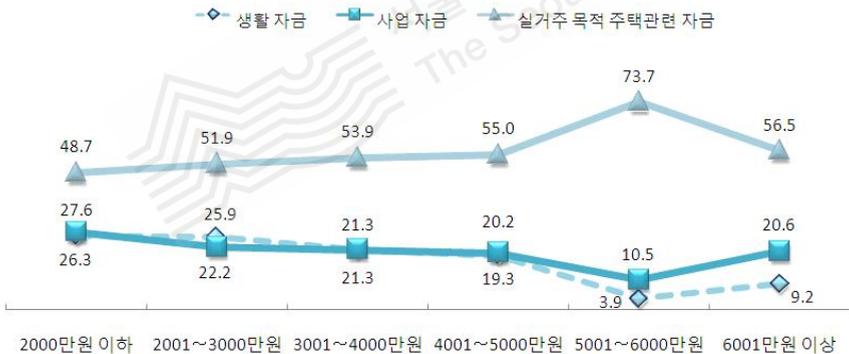
-한편,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수준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약 20%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소득계층은 15% 내외로 비슷함.



〈그림 4-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3) 부채 주 사용목적

- 부채의 주 사용용도(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개보수 등의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이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함.
- ‘생활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은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5,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인 27.6%로 조사됨.
- 반면, 투자 목적의 ‘재테크’는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수준이 6,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연령대가 6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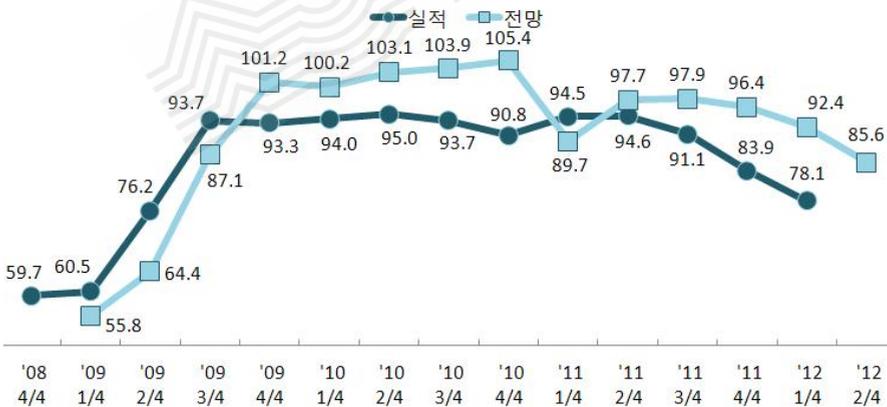
〈그림 4-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제2절 2012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 2012년 1/4분기 업황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임.
 - 업황실적지수는 78.1로 전분기대비 5.8p 하락하며 2011년 1/4분기 이후 연속 5분기 하락함.
 - 2012년 2/4분기 업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6.8p 하락한 85.6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해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업황지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은 0.9p 소폭 하락하여 85.3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6.8p 하락한 76.5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림 4-14〉 2012년 1/4분기 업황지수

2) 매출 부문 BSI

- 2012년 1/4분기 매출 BSI는 88.3으로 3분기 연속 부진세를 보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하며 부진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보합세로 94.3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1.3p 소폭 하락한 86.9로 조사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전분기대비 내수기업은 90.0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기업은 10.6p나 하락한 74.5를 기록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2012년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5.2p 상승한 96.9로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다소 개선되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전분기대비 수출기업은 86.6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나, 내수기업은 98.2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5〉 2012년 1/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 BSI

- 2012년 1/4분기 경상이익BSI는 전분기대비 3.6p 감소하여 86.4를 기록함.
 -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5.9p 감소한 91.7,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2.6p 감소한 85.2로 나타남. 수출기업은 69.8로 전분기대비 17.8p나 하락하였고 내수기업 역시 전분기대비 1.8p 하락한 88.4로 부진세를 이어감.
- 2012년 2/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2.8p 증가한 95.1로 전망되어 경상이익이 여전히 부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업종구분별로는 제조업은 91.7, 비제조업은 97.1로 경상이익이 다소 개선되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95.1로 경상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이익 전망은 수출기업이 78.2, 내수기업은 97.2로 증가하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못 미쳐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6〉 2012년 1/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 BSI

○2012년 1/4분기 자금사정 BSI는 전분기대비 3.7p 감소한 89.5로 기준치 (100)를 하회함.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4.7p 증가한 100.3으로 자금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5.4p 감소한 87.1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출기업 구분별로 자금사정실적지수를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17.7p 감소한 91.5,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1.8p 감소한 93.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1.1p 감소한 86.2, 비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5.9p 감소한 91.4를 기록함.

○2012년 2/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3.3p 증가한 92.8로 조사됨.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0.3p 상승한 100.6로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나, 중소기업은 4.0p 증가한 91.1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8.1p 증가한 81.9, 내수기업은 2.7p 증가한 94.2로 여전히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7〉 2012년 1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 2012년 1/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와 비슷한 92.8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업원수준이 시장수요보다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와 보합세인 97.2로 적정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비제조업은 90.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인력 부문이 여전히 좋지 못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보합세인 96.9, 91.9를 나타내었고, 수출기업, 내수기업 역시 전분기대비 작은 변화율로 95.0, 92.5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대부분 종업원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2012년 2/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 역시 전분기와 비슷한 92.5로 변화가 적은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2.7p 감소한 94.5로 종사자수가 다소 모자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91.4로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8〉 2012년 1/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5장 2012년 2/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2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2년 2/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5 장

2012년 2/4분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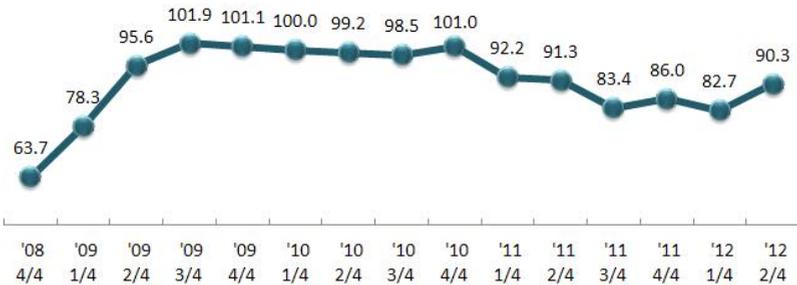
제1절 2012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2012년 2/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7.7p 상승한 82.7을 기록함.

- 이는 5분기 만에 처음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완화되어 소비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모두 지수가 전분기대비 최대 9.2p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며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1〉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 하락세를 이어오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조사 시작이후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2.6p 상승한 87.2를 기록함.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001~4,000만원 계층에서만 전분기대비 0.4p 감소세를 보이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에서는 지수가 9.2p 상승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6.0p 상승한 105.6을 기록하며 지난 5분기 이후 처음 상승세를 보여 서울시의 가구들은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이 현재보다는 비교적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분기대비 모든 소득계층에서 2.3~9.0p 증가하고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에서는 6.5p 상승한 97.6을 기록해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도는 값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5-2〉 2012년 2/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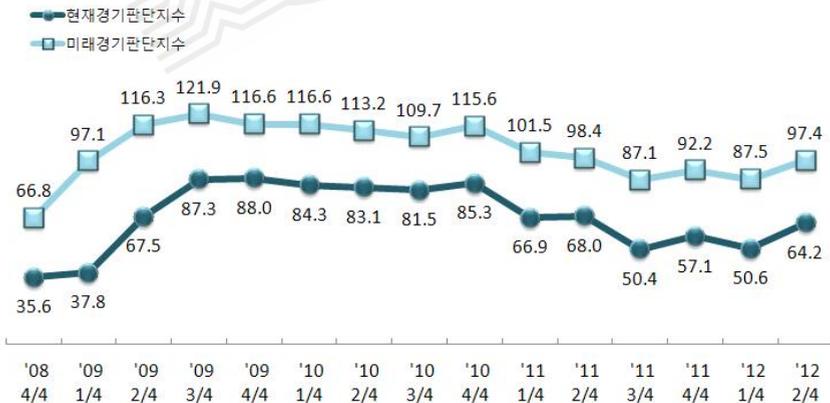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4.2, 미래경기예상지수는 97.4를 기록함.

- 이는 전분기대비 각각 13.6p, 9.9p 상승한 수치로 지난 6분기 동안 처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임.

-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 2012년 2/4분기 현재와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미래경기판단지수는 5,001~6,000만원 소득계층에서 4.6p 상승하였고,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001~5,000만원 소득계층에서 16.5p 상승하는 등 전 소득계층에서 평균 10p 이상 상승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현재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최대 15.2p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음. 미래경기판단지수는 50대와 60대에서 전분기대비 각각 14.4p, 13.0p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넘어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3〉 2012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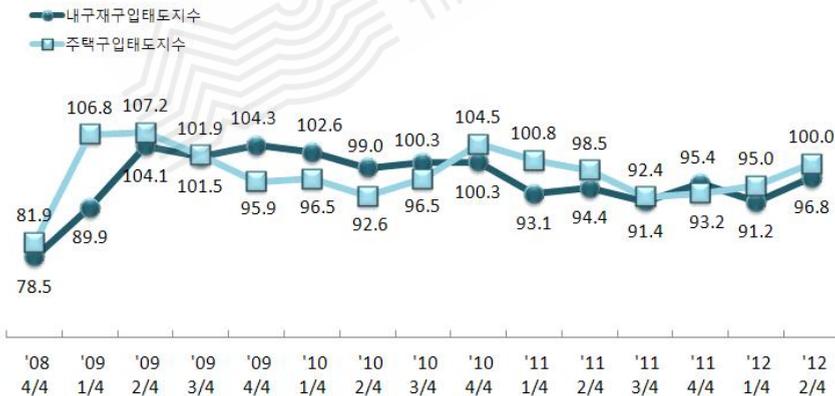
4) 구입태도지수

○ 2012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지난 1/4분기보다 5.6p 상승한 96.8을 기록하며 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함.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하며 2,000만원 이하, 5,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넘어서고 있어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5.0p 상승하며 100.0을 기록하며 1년 만에 기준치(100)에 도달해 주택구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전분기 대비 2~7p 상승하고 있으며 3,001~5,000만원 사이의 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모두 기준치(100)를 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주택 구입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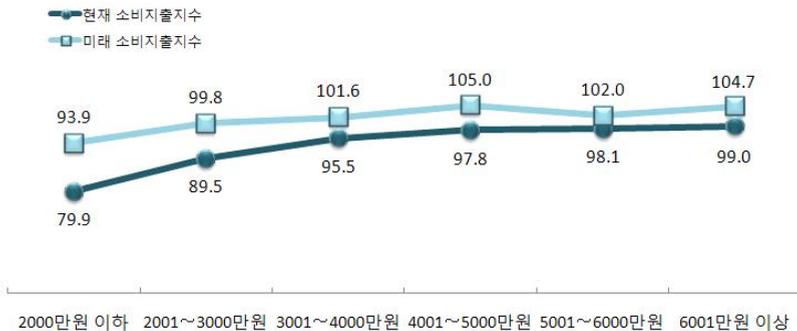


〈그림 5-4〉 2012년 2/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 2012년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2.3p, 2.6p 상승한 93.6과 101.5를 기록하여 현재에는 소비를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미래에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소비자가 더 많아짐.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비’와 ‘교통/통신비’, ‘주거비’가 각각 113.9, 109.6, 100.2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음.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며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상승폭(6.5p)으로 가장 높은 지수값(99.0)을 기록하여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 이하의 값을 보임.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5,001만원 이상 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3,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전분기 대비 기준치(100)를 넘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5〉 2012년 2/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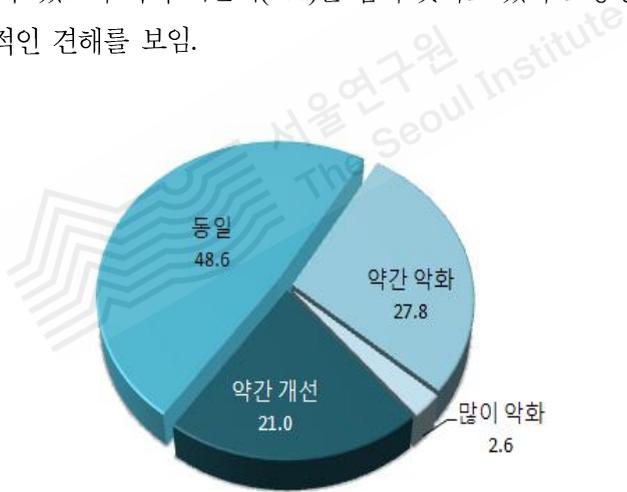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9.2로 지난 1/4분기에 비해 2.4p 상승하여 2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기준치(100)를 넘지 못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3.9%로 전분기(21.5%)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4%로 전분기(25.2%)에 비해 감소함.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241개 가구 중 69.3%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반면,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242개 가구 중 38.4%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지목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자산지수가 100을 상회하며 순자산이 늘었다는 가구가 더 많았고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에서는 자산지수가 87.8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5-6〉 2012년 2/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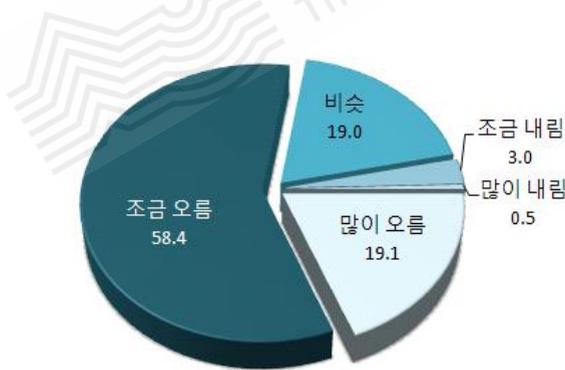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94.0으로 지난 1/4분기보다 6.0p 하락함. 하지만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고용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1.0%,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30.4%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음.
- 고용상황전망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상승하며 전분기대비 고용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분기대비 지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기준치(10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고용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그림 5-7〉 2012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예상지수

- 2012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146.3을 기록함.
 - 최근 물가 오름세가 소폭 완화되긴 하였으나 오랜 기간 물가안정의 실패와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며 체감물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5%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물가예상지수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 3.2p 상승하며 150.2를 기록한 반면, 4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2.9p, 4.4p 하락하는 148.1, 140.7을 기록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가 불안 심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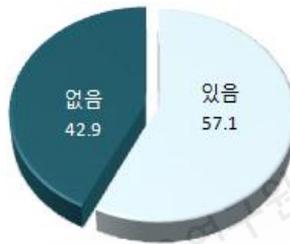
〈그림 5-8〉 2012년 2/4분기 물가전망

3.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유무 및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57.1%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소득계층의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4,001~5,0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9〉 가계부채 유무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5.3%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부채비율은 2,001~3,000만원대 계층에서 31.3%로 가장 높고, 5,001~6,000만원 소득계층에서 16.9%로 가장 낮음.



〈그림 5-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2) 원리금 상환 형태 및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부채가 있는 가구 중 51.1%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47.5%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특히 2,000만원 이하에서 그 비율이 64.6%로 다른 소득계층과 10%p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11〉 부채상환 형태

○이들 가구들은 현재 소득의 17.4%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64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의 ‘10~20% 미만’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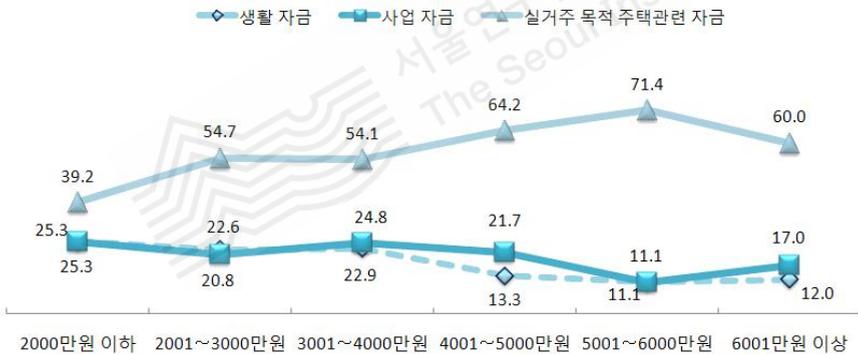
–한편,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수준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약 20%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소득계층은 15% 내외로 비슷함.



〈그림 5-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3) 부채 주 사용목적

- 부채의 주 사용용도(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개보수 등의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이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생활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은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1~13%대를 보이지만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22~25%의 비율을 보임.
- 반면, 투자 목적의 ‘재테크’는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수준이 6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연령대가 5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5-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4. 부가조사 : 사교육비 지출

1) 사교육비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

○대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평균 77.8%인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미취학 아동과 대학생은 전년대비 4.3%p, 3.1%p 감소하여 전체 평균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임.



〈그림 5-14〉 자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미취학 자녀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632개 가구(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구 포함)의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은 평균 68만원으로 조사됨.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39만1천원이며, 고등학생이 71만1천원으로 가장 높고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80% 가까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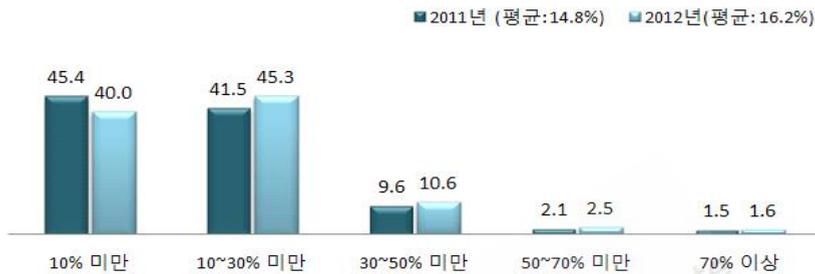


〈그림 5-15〉 학교급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증감 여부

○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평균 월 소득의 16.2%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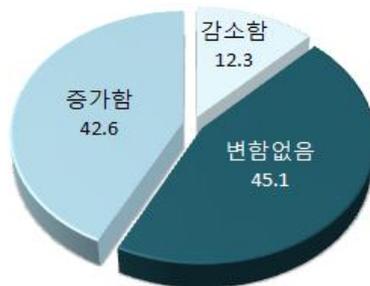
— ‘10~30%’가 45.3%로 가장 많고, ‘10% 미만’이 전년대비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됨.



〈그림 5-16〉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감여부를 조사한 결과 ‘증가했다’고 답한 가구가 42.6%인 반면, ‘감소했다’고 답한 가구는 12.3%에 그침.

— 소득계층별로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에서 ‘감소했다’는 의견은 18.0%로 다른 계층보다 높아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7〉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감 여부

3) 방과후 학습과 토요일업일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40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5.7%만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중 20.9%만이 방과후 학습 참여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24.4%는 ‘방과후 학습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함.



〈그림 5-18〉 방과후 학습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토요일업일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증가했다’고 답한 의견은 19.8%인 반면, ‘감소했다’는 의견은 1.1%에 그침.
 - 저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감소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2,001~4,000만원 이하와 6,001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아 토요일업일로 인한 시간을 또 다른 사교육에 지출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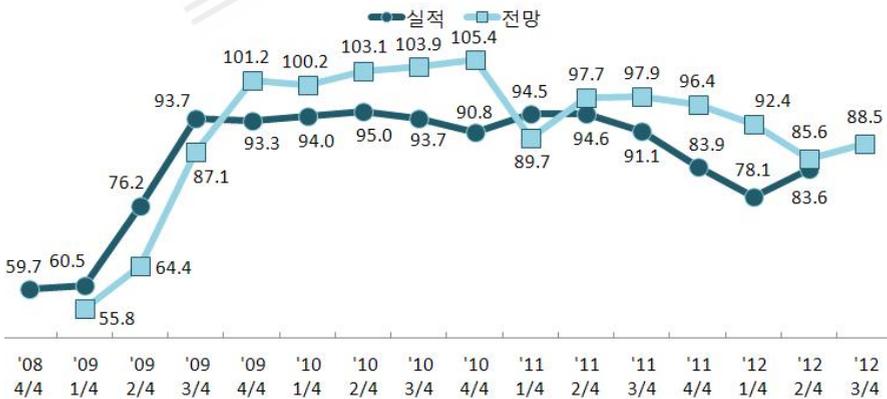
〈그림 5-19〉 토요일업일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효과

제2절 2012년 2/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 2012년 2/4분기 업황지수는 83.6으로 전분기대비 5.5p 상승하였으나 상반기 유로존 위기와 중동정세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체의 업황지수는 각각 81.9와 84.3으로 7.4p, 4.0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90.2, 중소기업은 80.5로 전분기대비 각각 4.9p, 4.0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 다음 분기 업황전망지수는 88.5로 2.9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수출기업은 전분기와 비슷한 66.0, 내수기업은 전분기보다 4.9p 상승한 84.6으로 조사되고, 다음 분기 전망도 수출과 내수기업 각각 71.4, 89.5로 수출기업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0〉 2012년 2/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 2012년 2/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87.6으로 전분기대비 0.7p 하락하며 4분기 연속 부진세를 보임.
 - 매출실적지수는 제조업체가 89.6으로 전분기대비 3.7p 증가하고 비제조업체는 86.7로 전분기대비 2.9p 하락하여 비제조업의 매출실적이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3/4분기 매출전망지수도 89.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계속 부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제조·비제조업체 모두 3/4분기 전망은 각각 88.0, 89.8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함.
 - 수출기업의 3/4분기 매출액전망지수는 80.6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수기업은 89.8로 전분기보다 1.8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향후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



〈그림 5-21〉 2012년 2/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 2012년 2/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0.5p 증가한 86.9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개선되지 못함.
 - 전분기대비 제조업은 88.5로 5.1p 상승했으나 비제조업은 86.3으로 1.8p 하락하여 비제조업의 경상이익이 더 악화됨.
 - 대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3p 감소한 89.4,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0.6p 증가한 85.8을 기록함.
 -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10.7p 상승한 80.5,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1.1p 감소한 87.3으로 계속 부진세를 보임.
- 2012년 3/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89.7로 여전히 부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업종구분별로 전분기대비 제조업은 보합, 비제조업은 8.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제조업의 이익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수출기업이 2.9p 하락한 77.6, 내수기업은 6.7p 하락한 90.5를 기록하여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이 수출입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22〉 2012년 2/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 2012년 2/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88.5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세를 보임.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0.8p, 3.8p 하락한 99.5, 8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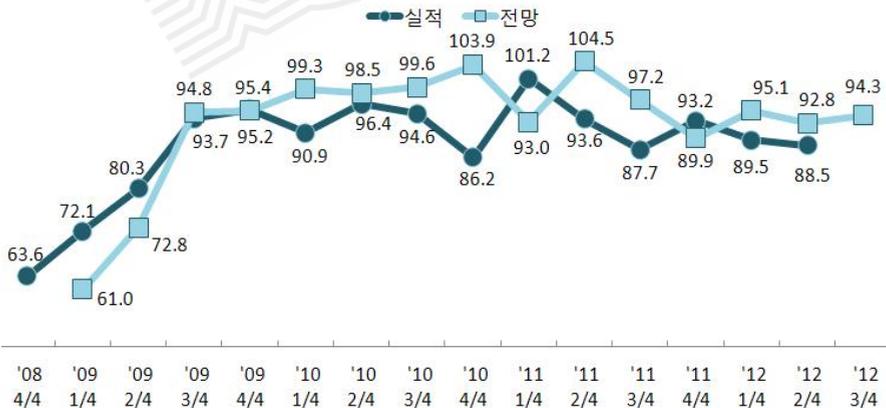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81.1, 내수기업은 88.9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함.

○ 다음 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5p 증가한 94.3으로 조사됨.

- 제조업은 96.9로 전분기대비 9.7p 상승하고,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보다 4.2p 상승한 93.2로 나타나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이나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1.1p 증가한 100.6, 중소기업은 8.0p 증가한 91.3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자금사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81.6, 내수기업은 95.1로 각각 0.5p, 6.2p 증가하여 향후 내수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그림 5-23〉 2012년 2/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 2012년 2/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5.1p 증가한 97.9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종사자 수준이 시장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0.6p 감소한 96.6으로 종사자수가 다소 부족한 반면, 비제조업은 전분기보다 8.2p 상승한 98.5를 기록해 인력 부문이 많이 개선됨.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96.3으로 전분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중소기업은 전분기보다 6.8p 증가한 98.7로 많이 개선됨.

○ 2012년 3/4분기 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4.8p 증가한 97.3으로 종사자 수준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95.5), 비제조업(98.0), 대기업(95.7), 중소기업(98.0), 수출기업(99.3), 내수기업(97.1) 모두 전분기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치(100)에 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4〉 2012년 2/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6장 2012년 3/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2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2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6 장

2012년 3/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2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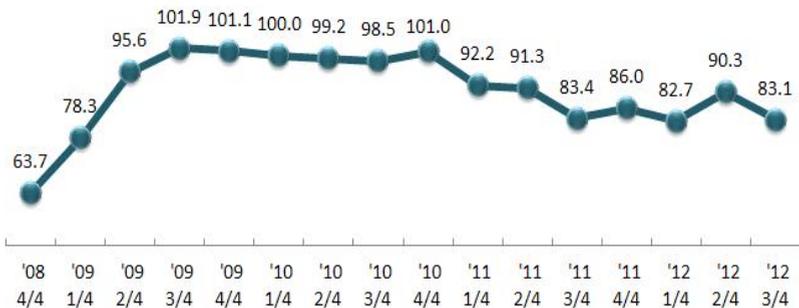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 2012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분기(90.3)보다 7.2p 하락한 83.1을 기록함.

- 2011년 1/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분기에 상승(7.6p)한 만큼 다시 떨어진 것으로 소비심리가 부정적 방향으로 다시 전환됨.

-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렀으나 물가 안정 방식의 차이와 기저효과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큰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1〉 2012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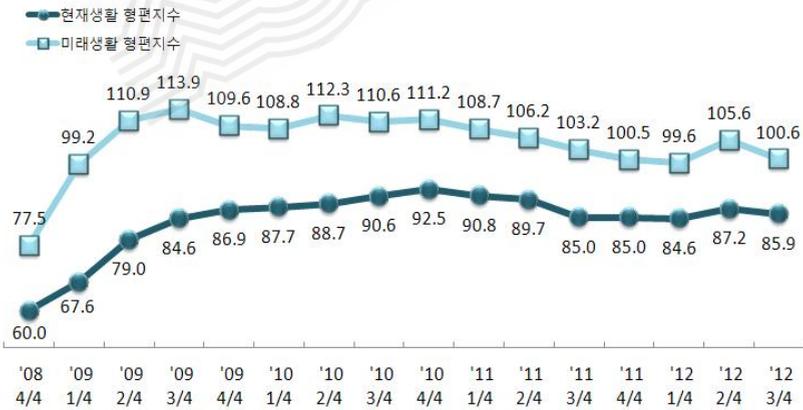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85.9로 2011년 3/4분기 이후 보합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5.0p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아직은 미래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더 많지만, 2011년부터 이어지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체감물가 상승과 가계 채무 부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이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수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001~5,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한데 비해,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0.8~4.9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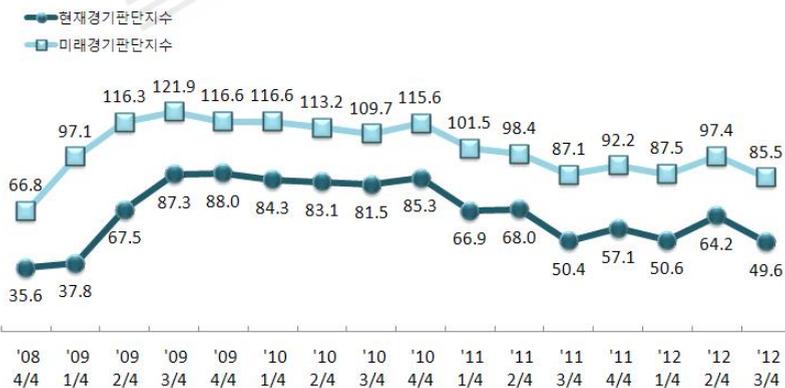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편이며 3,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3.4~6.6p 감소함.



(그림 6-2) 2012년 3/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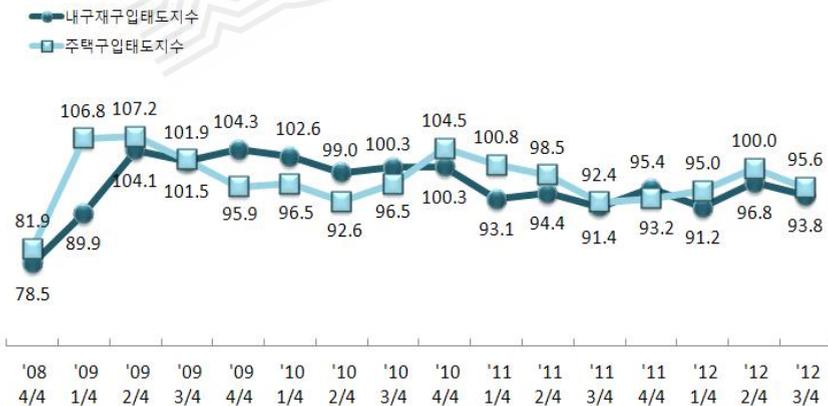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9.6,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5.5를 기록함.
 - 이는 전분기대비 각각 14.6, 11.9p 하락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됨.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서울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임.
- 2012년 3/4분기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9.1~19.4p 하락함.
 - 특히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5.8p 하락한 45.8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냄.
- 연령별로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함.
 - 특히 미래경기판단지수는 50대와 60대의 하락폭이 전분기대비 19.9p, 17.1p로 40대 이하 연령층보다 하락폭이 크며 50대의 현재와 미래경기판단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6-3〉 2012년 3/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 2012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0p 하락한 93.8을 기록하고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4.4p 하락한 95.6을 기록함.
 - 현 시점이 내구재를 구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택구입지수는 지난 분기 100.0을 기록했으나 다시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보아 현 시점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함.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3,001~4,000만원 이하와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각각 전분기대비 2.5p, 1.2p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1.8~9.2p 하락함.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지수가 유일하게 전분기대비 3.5p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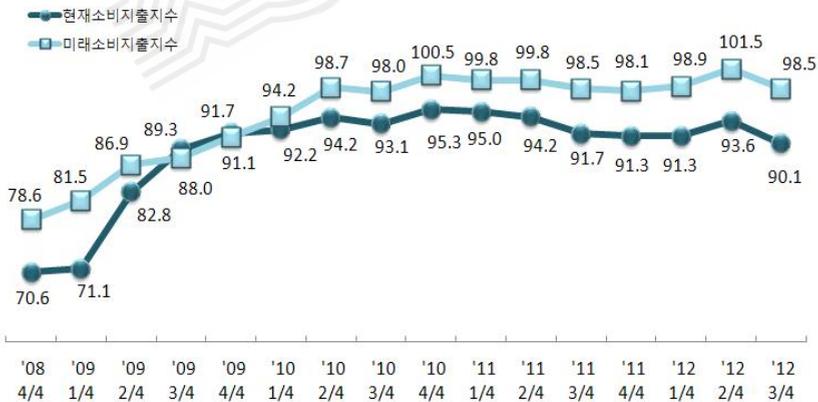
〈그림 6-4〉 2012년 3/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 2012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3.5p, 3.0p 하락한 90.1과 98.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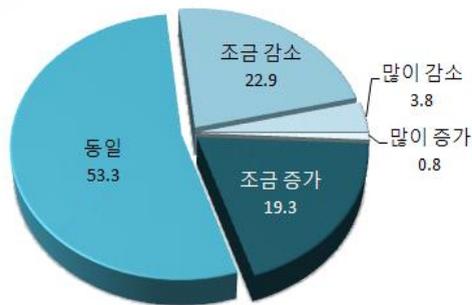
-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소비자가 더 많음.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비(112.1)와 교통/통신비(105.2) 항목에서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음.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전분기 대비 4.0p 증가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전분기 대비 3.3~6.4p 감소함.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01~3,000만원 이하, 5,001~6,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미래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6-5〉 2012년 3/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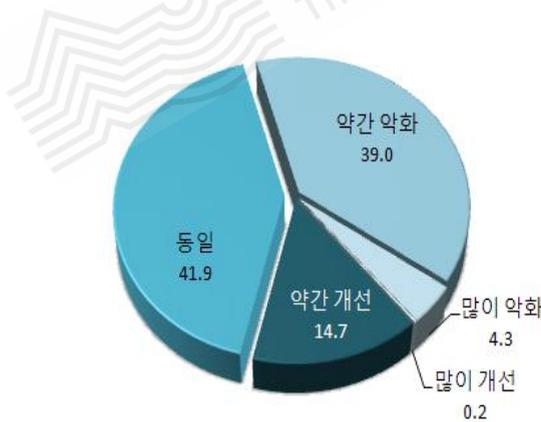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2로 전분기대비 4.0p 하락함.
 - 이는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최근 서울 가구들의 순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0.1%로 전분기(23.9%)에 비해 감소함.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71.9%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6.7%로 전분기(24%)에 비해 감소함.
 -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32.0%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지목함.
-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5,001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 자산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순자산이 늘었다는 가구가 더 많으나, 그 이외의 소득계층에서는 자산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며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6-6〉 2012년 3/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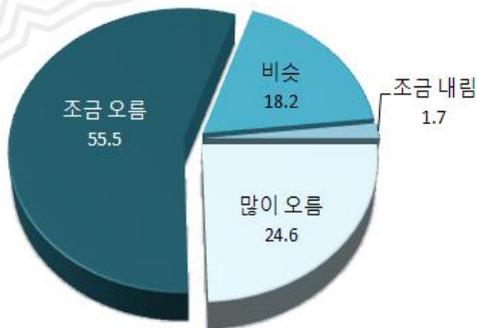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3.8로 지난 2/4분기보다 10.2p 하락함.
 - 이는 작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최근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14.9%,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43.3%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p 높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 미만임.
 -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8~12.6p의 하락폭을 보였고, 모든 값이 80대를 기록하며 소득계층 간 지수차이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분기대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0대에서 14.4p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77.7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



〈그림 6-7〉 2012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에상지수

- 2012년 3/4분기 물가에상지수는 전분기대비 5.2p 상승한 151.5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심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지수 산출방식이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80.1%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3.4~8.2p 상승한 가운데 4,001~5,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8.2p라는 가장 큰 폭 상승으로 155.7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9.8p, 6.1p의 큰 상승폭을 보이며 50대에서 가장 높은 값인 154.4를 기록하였고 60대에서 146.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그림 6-8〉 2012년 3/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유무 및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57.1%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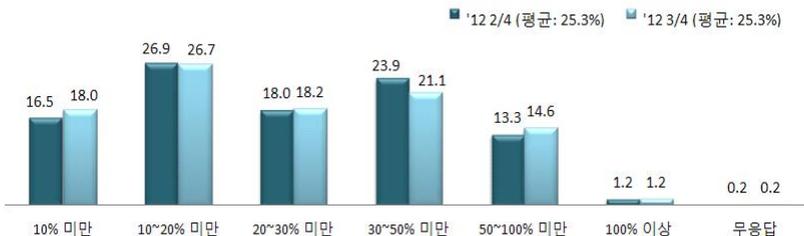
- 소득수준별로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비율은 4,001만원~6,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01만원~3,000만원 이하에서 61.1%로 가장 높고 6,001만원 이상에서 52.0%로 가장 낮음.



〈그림 6-9〉 가계부채 유무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5.3%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01~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은 31.3%로 가장 높지만, 6,001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은 20.3%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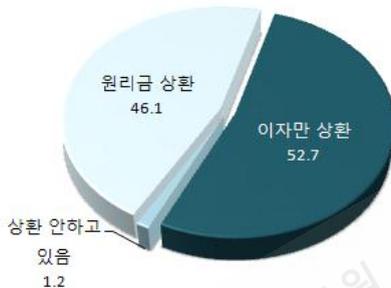


〈그림 6-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2) 원리금 상환 형태 및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부채가 있는 가구 중 52.7%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46.1%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1〉 부채상환 형태

○이들 가구들은 현재 소득의 17.3%를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67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의 10~20% 미만, 20~30% 미만을 상환하는 가구 비율은 전분기대비 각각 0.6%p, 2.1%p 감소하였고, 30~50%, 50% 이상을 상환하는 가구 비율은 전분기대비 각각 1.6%p, 1.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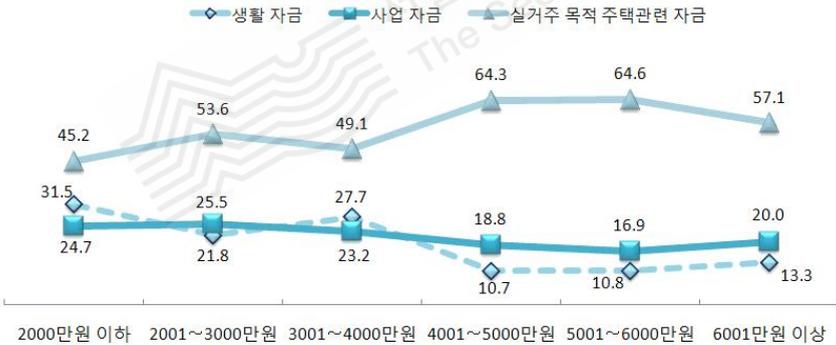
–한편,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약 21.7%로 가장 높고, 5,001~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14.9%로 가장 낮음.



〈그림 6-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비율

3) 부채 주 사용목적

- 부채의 주 사용용도(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개보수 등의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이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함.
 - ‘생활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는데,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10~13%를 보이고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21~30%로 조사됨.
 - 반면, 투자 목적의 ‘재테크’는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수준이 6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연령대가 5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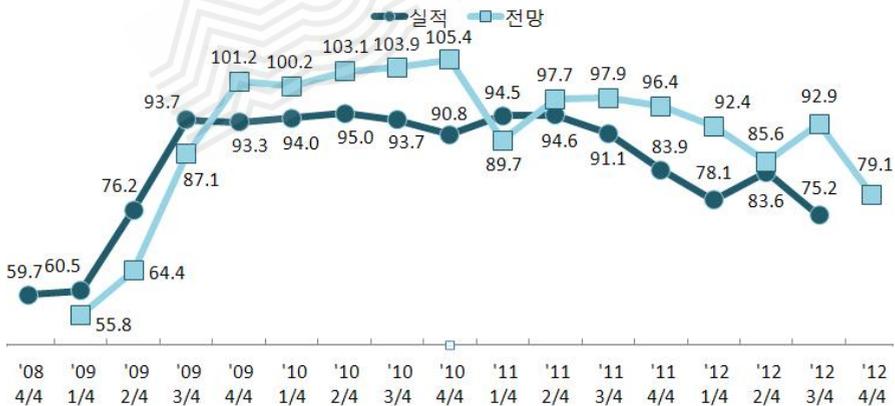
(그림 6-13) 소득수준별 부채 주 사용용도(복수응답)

제2절 2012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 2012년 3/4분기 업황지수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지난 분기 상승세에서 반전하여 75.2로 전분기대비 8.4p 하락함.
 - 2012년 4/4분기 업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3.8p나 급락한 79.1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2/4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상존으로 다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업종별 업황지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은 2.5p 하락하여 79.4를 기록했으나 비제조업은 10.8p 하락한 73.5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림 6-14〉 2012년 3/4분기 업황지수

2) 매출 부문 BSI

- 2012년 3/4분기 매출 BSI는 78.5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부진세를 보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분기대비 8p 이상 하락하며 부진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5.6p 하락하여 84.1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10.6p나 하락한 76.0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전분기대비 내수기업이 79.9로 8.1p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기업은 18.4p나 하락한 62.4를 기록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87.1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90.1)보다 많이 하락한 85.9를 기록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전분기대비 수출기업은 62.4로 실적지수와 같은 값을 보이며 18.2p 하락한 반면, 내수기업은 0.5p 하락한 89.3으로 분석됨.



〈그림 6-15〉 2012년 3/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 BSI

- 2012년 3/4분기 경상이익 BSI는 전분기대비 5.0p 감소하여 81.9로 하락함.
 - 대기기업은 전분기대비 2.5p 감소한 86.9,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6.2p 감소한 79.6로 나타남. 수출기업은 83.4로 전분기대비 2.9p 상승하였으나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5.6p 하락한 81.7로 부진세를 이어감.
- 2012년 4/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88.9로 전망되어 경상이익이 여전히 부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업종구분별로는 제조업은 11.4p 하락한 80.3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은 92.3으로 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경상이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기업의 경상이익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상이익 전망은 수출 기업이 68.8로 전분기대비 8.8p 하락하는 반면, 내수기업은 90.7로 전분기대비 0.2p 소폭 상승하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못 미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6-16〉 2012년 3/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 BSI

○ 2012년 3/4분기 자금사정 BSI는 전분기대비 3.2p 감소한 85.3으로 3분기 연속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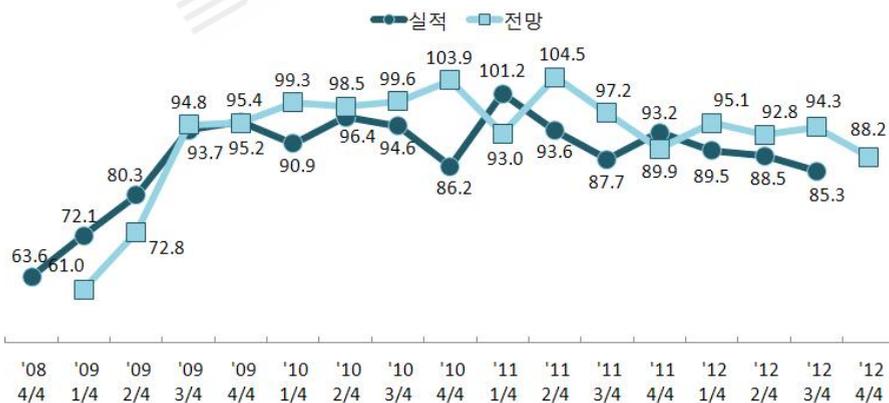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10.3p 하락한 89.2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0.2p 소폭 상승한 83.5로 자금 사정이 지난 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 구분별로 자금사정실적지수를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6.5p 감소한 74.6,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2.7p 감소한 86.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0.7p 감소한 86.5, 비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4.2p 감소한 84.8을 기록함.

○ 2012년 4/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6.1p 감소한 88.2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2p 하락한 93.4, 중소기업은 5.4p 하락한 85.9로 모두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12.6p 하락한 69.0, 내수기업은 5.3p 하락한 89.8로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17〉 2012년 3/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2012년 3/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7p 하락한 95.2로 종업원수준이 시장수요보다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한 98.7로 적정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비제조업은 93.8로 전분기대비 4.7p 하락하여 인력 부문이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각각 92.9, 96.2를 나타내었고, 수출기업, 내수기업 역시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93.9, 95.3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대부분 종업원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2012년 4/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보다 3.2p 하락한 94.1로 종업원수가 2012년 1/4분기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1.6p 상승한 97.1이나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사자수가 다소 모자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5.1p 하락한 92.9로 전분기보다 더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6-18〉 2012년 3/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7장 2012년 4/4분기 조사 결과



-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제2절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제3절 서울의 4/4분기 기업 체감경기
- 제4절 2013년 서울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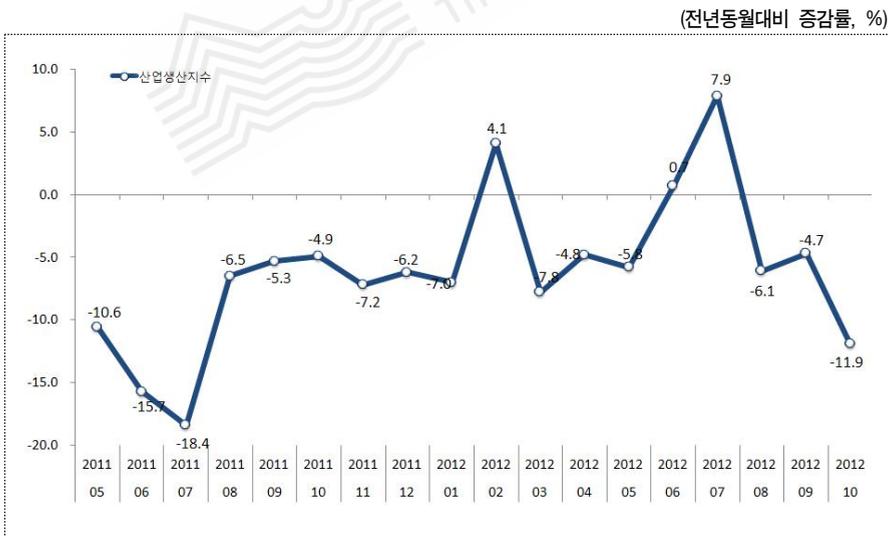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유로존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미국경제 회복도 둔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성장세 약화
- 유로지역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저성장 기조 지속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 중심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최근 미국경제는 실업률 하락, 주택가격 상승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나 유로존 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당분간 경기 회복세 둔화 전망
 -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과 긴축재정정책 등으로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흥시장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 전망
 - OECD 경제전망(2012년 11월)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2년보다 0.5%p 높은 3.4% 예상
 - 이는 지난 5월에 제시한 전망치(4.2%)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유로지역의 채무위기와 미국의 재정 극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대선 등 정치적 변수 존재

-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경제 성장 가능성으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호전 예상
-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비, 고용 모두 부진
 -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 반전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11.9%로 3개월 연속 저성장 기조
 - 자본재 및 중간재, 소비재 생산도 하락세로 2012년 10월에 각각 -26.1%, -13.2%, -8.3% 증가율 기록
 - 산업생산지수의 약세는 2012년 9월 8.4% 성장한 자본재 생산이 한 달 만에 -34.5%p 급격히 하락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년 이상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서울시 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자료 : 통계청

〈그림 7-1〉 서울의 산업생산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율 10월에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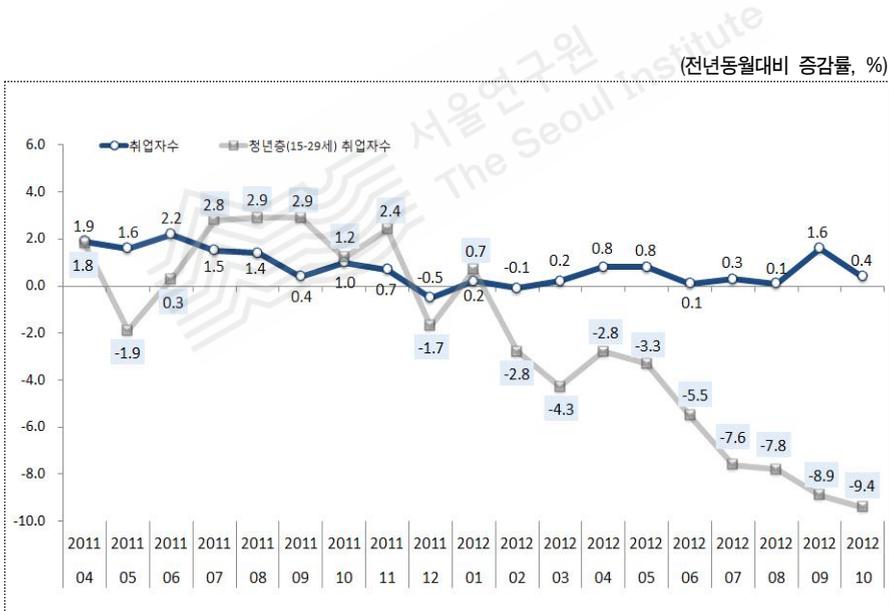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2년 10월 전년동월대비 -2.8% 증감률 기록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5.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2012년 9월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상승은 추석연휴로 인한 계절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전반적으로 서울의 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의 소비 기대심리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자료 : 통계청

〈그림 7-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소폭 상승, 청년층 취업자수는 꾸준히 감소세
 - 2012년 10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5,043천명
 - 2012년 9월 총 취업자수 증가율 1.6%보다 1.2%p 감소하였으나 최근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이 0.7%로 2012년 하반기 서울의 고용은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세 지속
 - 2012년 10월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854천명
 - 2012년 1월 이후 서울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평균 0.4%를 보이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평균 -5.2%로 급감하고 있어 서울시 청년층 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



자료 : 통계청

〈그림 7-3〉 서울의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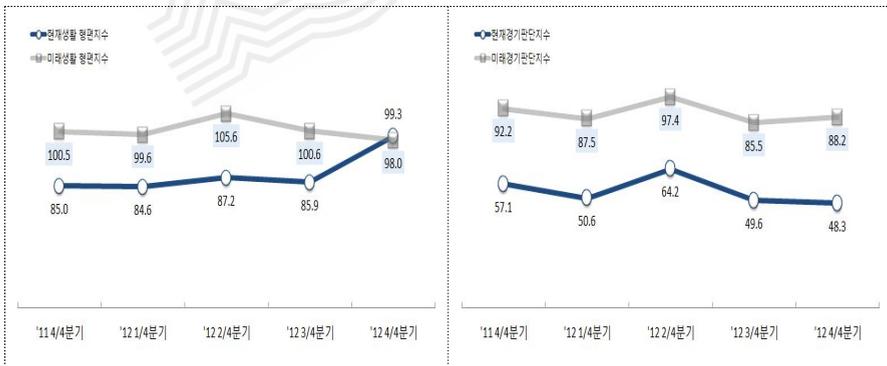
제2절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나 점진적 회복세 기대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하반기 하락세가 소폭 개선
 - 2012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83.8로 전분기대비 0.7p 상승
 - 이는 2012년 3/4분기 83.1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반전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세로 전환
 - 유로존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높은 곡물가격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나 서울 시민의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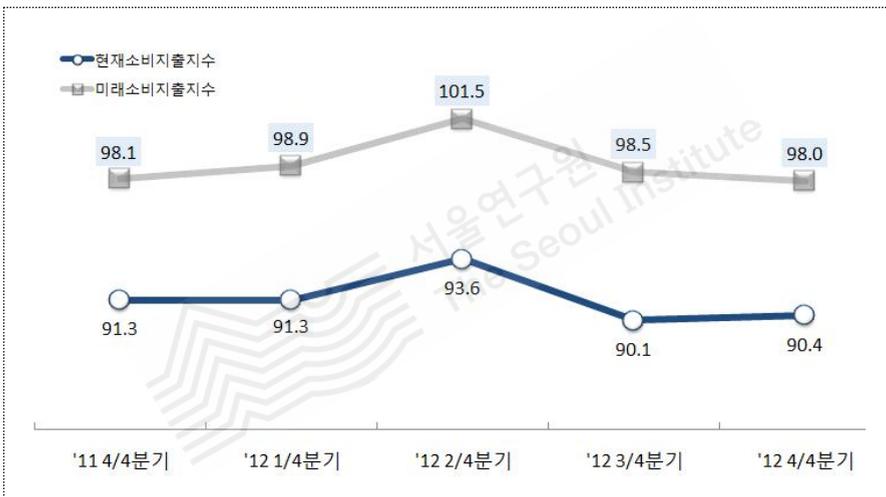
〈그림 7-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폭 하락
 - 2012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13.4p 상승한 99.3,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2.6p 하락한 98.0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4분기 연속 평균 85.7을 유지하다가 4/4분기 기준치(100)에 가깝게 상승하여 서울시민이 느끼는 생활형편이 개선되었음을 시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으나 4/4분기 98.0을 기록하여 미래 생활형편의 큰 폭 개선은 없을 전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소폭 상향
 - 201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48.3,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2.7p 상승한 88.2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2년 2/4분기를 제외하고 1년 연속 하향세
 -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와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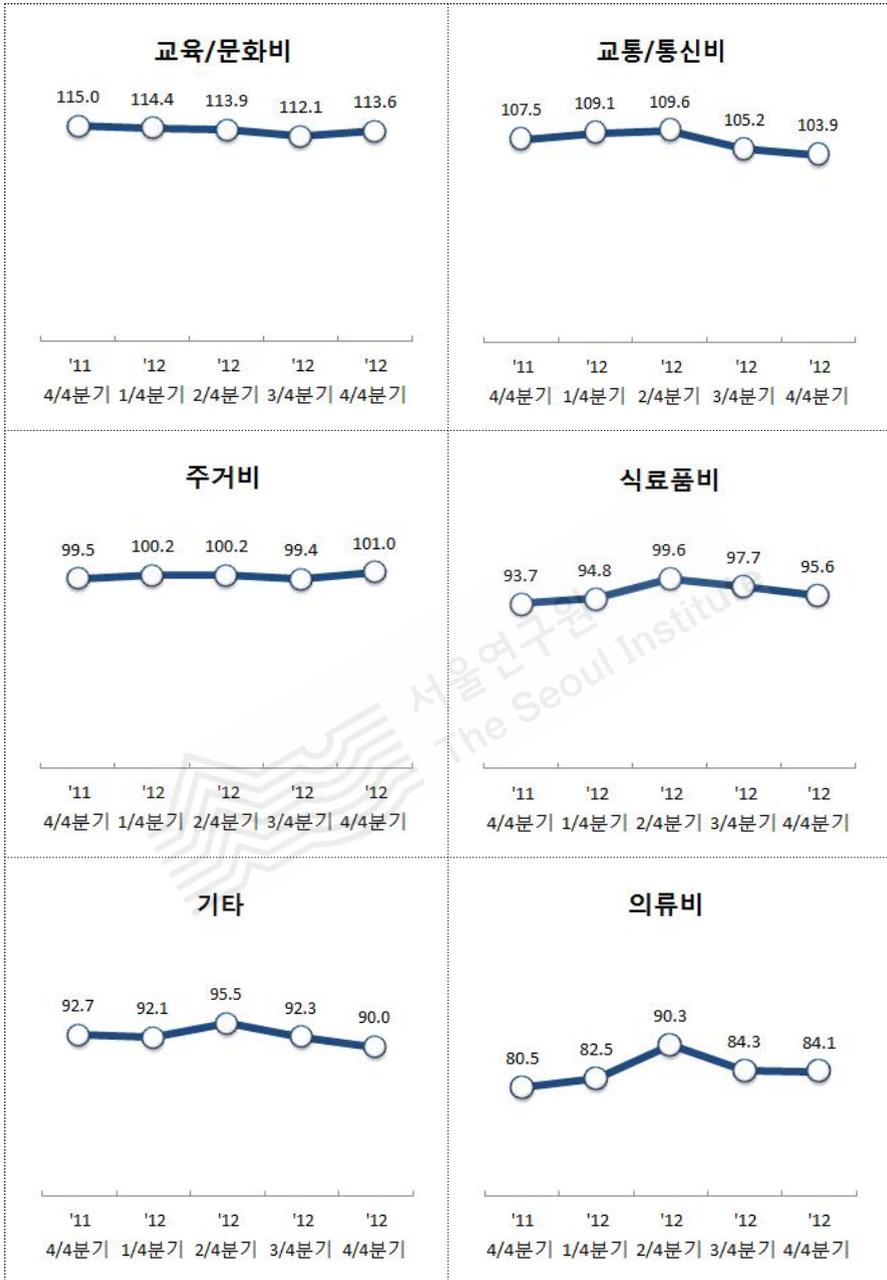
〈그림 7-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

-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기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하락
 - 지난 분기에 하락세로 반전한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90.4를 기록하였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98.0을 기록하여 2012년 2/4분기 이후 연속 하락
 - 현재 소비심리는 미미하게 개선되었으나 향후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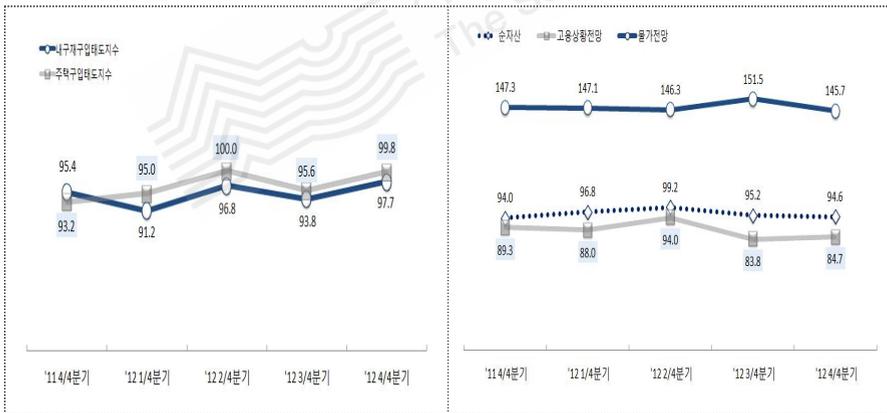
〈그림 7-6〉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품목별로 교육, 교통, 주거비에서 미래 소비지출이 증가할 전망
 - ‘교육/문화비(113.6)’, ‘교통/통신비(103.9)’, ‘주거비(101.0)’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고, ‘식료품비(95.6)’, ‘기타(90.0)’, ‘의류비(84.1)’ 순으로 향후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



〈그림 7-7〉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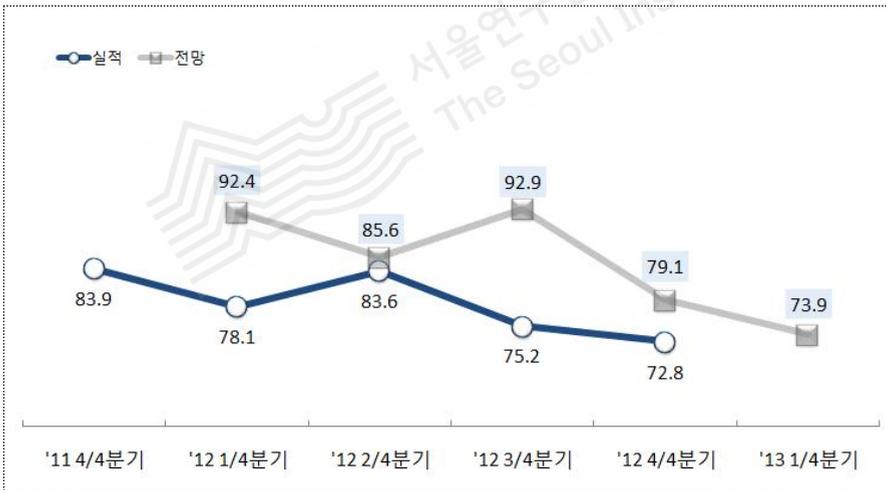
-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
 - 2012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3.9p 상승한 97.7,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4.2p 상승한 99.8을 기록
 - 주택가격 하락과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에 기인하여 내구재와 주택구입의 시기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증가했음을 시사
- 순자산과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물가불안 심리 다소 진정
 - 2012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5.8p 하락한 145.7로 2011년 4/4분기 이래 최저값을 기록하고 있어 다소 안정된 물가불안 심리 반영
 - 2012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94.6을 기록한 반면,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94.6을 기록
 -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준치 (100)를 크게 하회



〈그림 7-8〉 서울의 내구재,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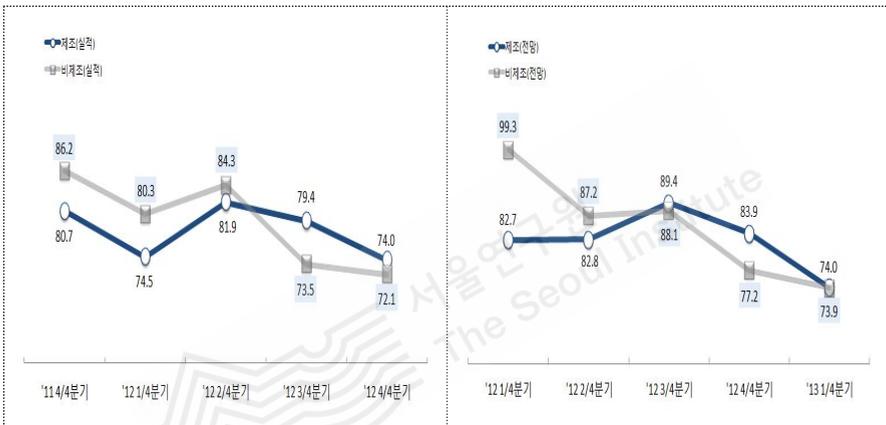
제3절 서울의 4/4분기 기업 체감경기

- 현재와 향후의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악화
-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하여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가 비관적임을 시사
 - 서울의 2012년 4/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72.8, 2013년 1/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5.2p 하락한 73.9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최근 3년이래 최저값을 기록하며 2012년 2/4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환경 역시 부정적 전망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7-9〉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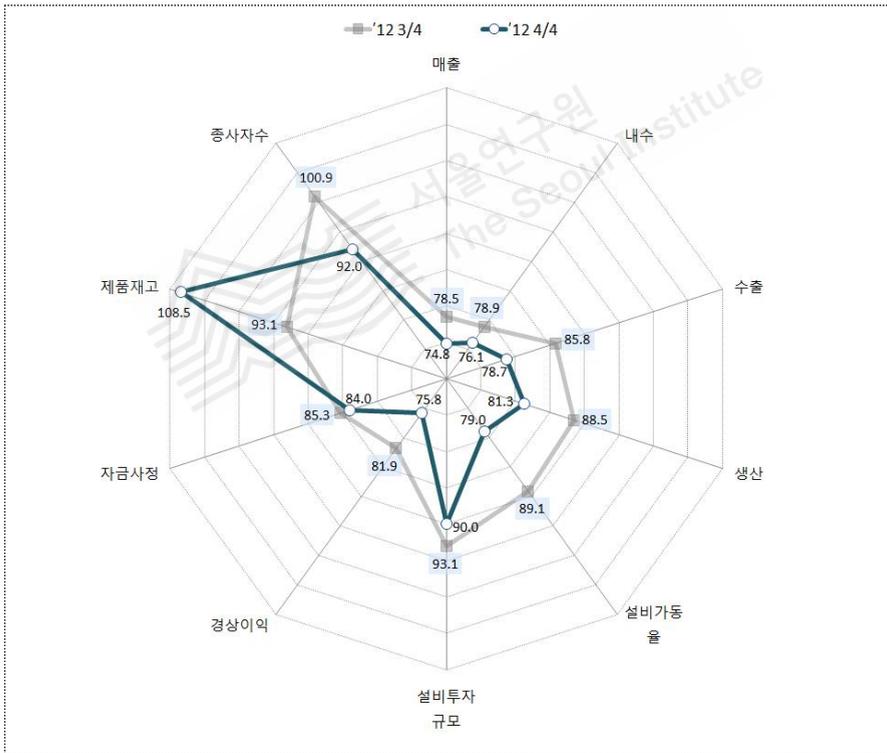
-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보다 더 큰 폭 하락세
 - 2012년 4/4분기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5.4p, 2.4p 하락하여 74.0, 72.1을 기록
 - 지난 분기와 대조적으로 이번 분기에는 제조업이 크게 하락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지수 값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13년 1/4분기 제조업 업황전망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74.0, 73.9로 전분기대비 9.9p, 3.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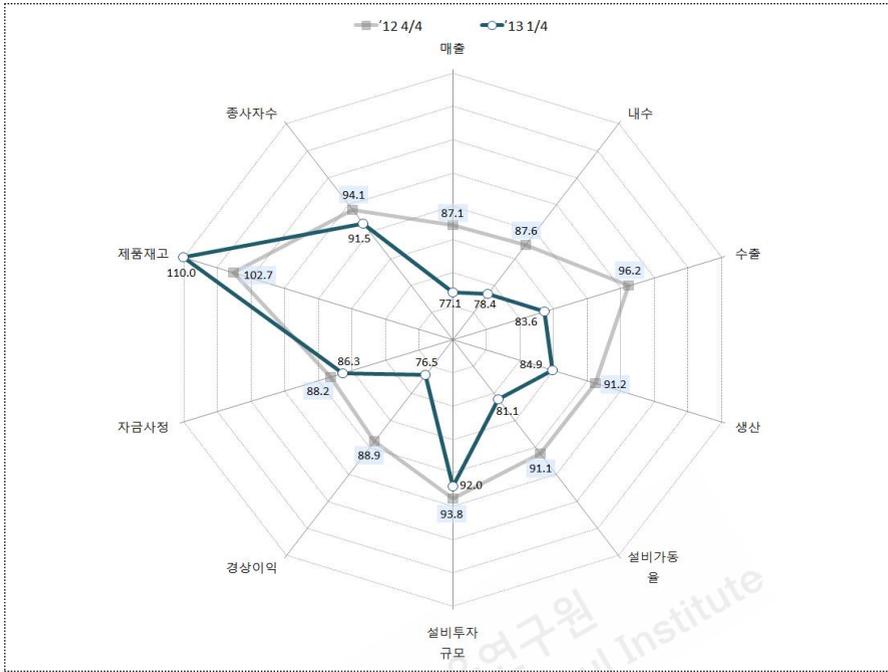
〈그림 7-10〉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
 - 설비가동률지수와 생산지수, 수출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10.1p, 7.2p, 7.1p 하락한 79.0, 81.3, 78.7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
 -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상이익 또한 전분기대비 6.1p 하락하여 75.8을 기록
 - 불확실한 경제상황 장기화 등의 요인이 기업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향후 기업 경영여건 또한 대부분의 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으나 수출 위주의 회복세를 기대
 - 2013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특히 수출전망지수와 경상이익전망지수에서 전분기대비 12.6p, 12.4p 증가하여 96.2, 88.9를 기록하며 큰 폭 상승
 -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기업 경영의 기대심리는 부정적이거나 외형적 성장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연말·연시 등 계절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서울의 기업경영 환경 또한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



〈그림 7-11〉 서울의 부문별 실적지수



〈그림 7-12〉 서울의 부문별 전망지수

제4절 2013년 서울경제 전망

-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은 ‘상중하고(上中下高)’ 예상
- 서울경제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년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의 성장률 3.3%보다 하회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체감경기 조사 결과 업황전망지수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2013년 상반기 서울 경제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2013년 하반기 내수 회복세에 따라 상반기보다 다소 성장 예상
 - 서울의 경제성장률 성장폭(0.6%p)은 전국(0.7%p)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성장 기조 유지 및 활성화 방안 필요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년 10월), KDI(2011년 11월), HRI(2012년 9월), LGRI(2012년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7-13〉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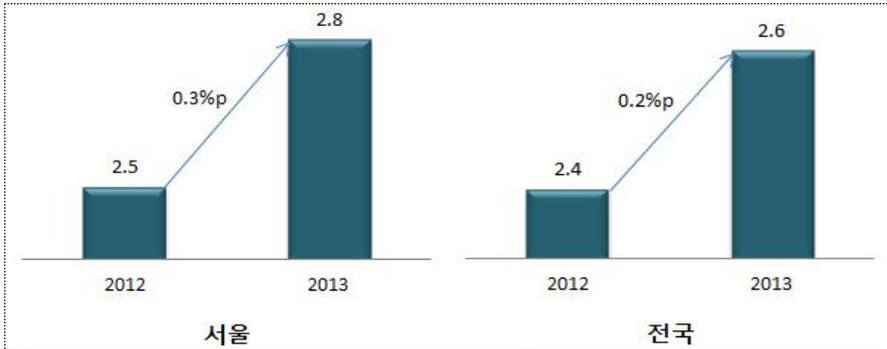
- 2013년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2.6% 증가 전망
- 서울의 소비심리 소폭 개선으로 민간소비지출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12년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가 98.0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 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안정과 고용시장 개선 등 영향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0.5%p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년 10월), KDI(2011년 11월), HRI(2012년 9월), LGRI(2012년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7-14〉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서울의 2013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8% 전망
 - 2013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경제성장률 개선으로 인해 전년대비 0.3%p 높은 2.8% 상승 예상
 -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상승폭이 전국(0.2%p)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가상승률을 상회
 -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서울의 서비스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크지 않을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년 10월), KDI(2011년 11월), HRI(2012년 9월), LGRI(2012년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7-15〉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2013년 서울의 실업률은 4.4%로 2012년 대비 0.1%p 감소

- 2012년에 이어 특히 2013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전망
- 공공서비스 부문 등의 고용 계획과 대선 공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인해 2013년 서울 취업자 수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장년층(50~59세) 취업률이 최근 10개월간 평균 4.1%로 증가하는 등 연령별로 장년층 이상의 취업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년 10월), KDI(2011년 11월), HRI(2012년 9월), LGRI(2012년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7-16〉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제8장 시사점 및 정책제안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안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 2011년 4/4분기 : 2012 경제전망

□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서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2.8%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경제성장 전망치 2.5%는 지표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해석
-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대내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표상 경제성장률과 실질 체감경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이 부정적이고,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체감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 2011년 서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2012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빠른 고용여건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서울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향후 성장동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2012년 1/4분기

□ 서울의 산업생산 감소, 내수 정체, 고용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 서울의 산업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이 횡보세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은 증가세 둔화
 - 2011년 8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평균 -6%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평균 2%대 성장 유지로 경기 회복세 약화
 - 취업자수는 2012년 1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 둔화

□ 물가상승 압력 지속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자 체감경기 계속 하락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2.7을 기록
 -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소비자 체감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2009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8.1을 기록

- 3분기 연속 하락폭 증가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

3. 2012년 2/4분기 : 2012년 하반기 전망

□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상반기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와 같은 3.0%로 안정 예상

— 물가안정에 따라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실질구매력으로 이
어지지 못한 상태로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한 2.3% 전망

—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하반기 실업
률은 상반기 대비 0.4%p 감소한 4.3% 예상

□ 2012년 2/4분기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와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
반적으로 개선될 것이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

○ 서울의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와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각
각 7.6p, 5.5p 상승한 90.3, 83.6

—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도 전분기대비 각각 2.6p, 13.6p 상승한
87.2, 64.2로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하회

— 생산은 89.8로 전분기대비 7.1p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기록

— 매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87.6으로 내적 성장은 정체

4. 2012년 3/4분기

□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 하락세로 향후 서울경제 회복은 불투명

○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은 증가하나 내수와 고용은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 제조업의 산업생산은 증가하였으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과 고용은 감소세로 민간 소비와 고용 여건이 악화

- 산업생산은 2012년 7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기 마이너스 성장세에 따른 기저현상으로 분석

-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취업지수 증가율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0.3%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은 큰 개선이 없을 전망

○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자 체감경기는 다시 하락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83.1로 전분기대비 7.2p 하락하여 1/4분기 수준으로 복귀

- 2/4분기 상승세로 반전한 뒤 1분기 만에 하락세로 조사되어 소비자 체감경기 심리가 단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 하락세 반전으로 경기 회복은 난망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8.4p 하락한 75.2를 기록

- 특히,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10.8p 하락한 73.5

5. 2012년 4/4분기 : 2013년 서울경제 전망

□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하락세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2013년 점진적 회복이 기대

○ 2012년 하반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

- 서울의 2012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83.8,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72.8을 기록

- 생활형편지수는 99.3으로 전분기대비 12.1p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48.3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생산, 수출, 경상이익 등의 주요 경영지표가 전분기대비 각각 7.2p, 7.1p, 6.1p 하락한 81.3, 78.7, 75.8을 기록하고 있어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실적 위축

○ 2013년 서울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0%로 2012년에 비해 0.6%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 전망에 기인하여 2012년보다 0.3%p 상승한 2.8%로 안정화 예상

- 물가안정에 따라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서울의 미래소비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므로 2012년 대비 0.5%p 상승한 2.6% 전망

- 2012년 하반기에 이어 공공서비스 부문 등의 일자리 창출 계획 등으로 2013년 서울의 실업률은 2012년과 비슷하여 0.1%p 감소한 4.4% 예상

제2절 정책제안

1. 2011년 4/4분기 : 2012 서울경제 전망

□ 2012년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서울시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절 필요

- 단기적으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지원사업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 취업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
 - 또한 신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지출의 합리화 추구

□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유지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
 -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굴을 위해 지원방안 체계화 도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 모색

2. 2012년 1/4분기

□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책 필요

-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책의 예산을 우선

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 모색

- 직업 훈련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운영 등 고용
여건 제도의 개선 필요

-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등 청년실업대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

- ‘장년창업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한 창업 장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심에 특화된 중소기업 조업 활 성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력 회복

○ 서울 산업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8대 신성장동력 산업(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전시, IT 융합, 바이오
메디컬, 녹색산업,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패션) 및 4대 도시형 산업(인쇄,
의료봉제, 귀금속, 기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와
권역별 균형발전 유도

○ 경쟁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보호 프로그램 확대

- 분식, 제빵, 세탁업 등의 대기업 진출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도입·운영으로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자생
력 강화

□ 내수 증가를 통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화 노력 필요

○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 가중

- 서울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

- 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등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물가정보 비교·공개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체제 마련

3. 2012년 2/4분기 : 2012년 하반기 전망

□ 서민들의 복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 서민생활 지원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가계소득 안정화 유도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통해 성장기반 강화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서민 자영업 보호육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
 - 기술혁신이나 R&D개발 지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취약한 기술 경쟁력 확보

□ 도심형 제조업과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 성장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의 기초가 되는

- 도심형 제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 산업의 육성이 중요
- 인쇄, 의료봉제 등 4대 도시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
- 신성장동력산업인 IT, BT, GT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R&D 활성화

4. 2012년 3/4분기

□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고용창출 대책이 필요

-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의 여건 조성
 -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희망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 직업 훈련이나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운영 등 고용여건 제도의 보완
 -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 등 체계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 필요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한 물가 상승압력을 고려하여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의 관리·감독 강화와 홍보를 통해 물가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의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덜어주는 등의 물가 안정 대책 마련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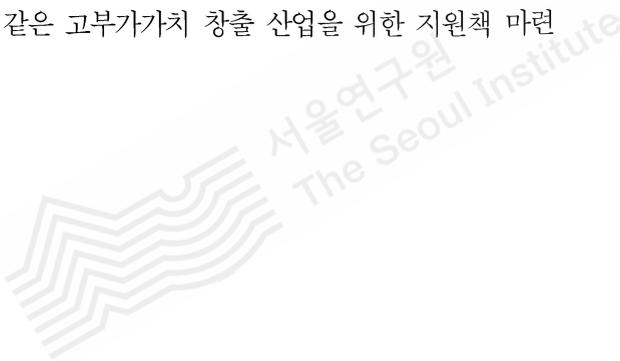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도심에 특화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보호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

5. 2012년 4/4분기: 2013년 서울경제 전망

□ 청년층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서울 특화산업 중심으로 서울경기 활성화 정책 마련

- 서울시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 정책 강화
 -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의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시장에 청년 인력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공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
 - ‘중소기업 인턴십’, ‘서울 R&D’를 통한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술개발비 지원 등으로 청년층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울의 산업기반을 이루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유지
 -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92%를 이루고 있어 서울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육성 및 보호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이나 영세상인 적합업종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경쟁력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
 - 현재 진행 중인 ‘도로점용료 감면정책’ 및 홍보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희망홍보 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지 및 보완
-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성장의 활력소가 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환경 여건 조성
- 서울 경제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환경 조성 추진
 - 한국 관광객의 약 70%를 담당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 숙박, 도·소매 유통 산업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 도심에 특화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첨단·특허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부 록



1. 소비자체감경기 조사표
2. 기업체감경기 조사표
3. 2011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주요 조사 결과

1) 소비자체감경기 기본조사 세부내용

SQ1) 가구주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SQ2)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SQ3) 응답자 구분 :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Q1. 현재 귀택의 생활형편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 1. 많이 좋아졌다 2. 조금 좋아졌다 3. 똑같다
- 4. 조금 나빠졌다 5. 많이 나빠졌다

Q2. 귀택의 생활형편은 1년 후에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 같습니까?

- 1. 많이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똑같은 것이다
-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Q2-1) 귀택의 생활형편이 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임금 등의 가계소득 증가 2.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
- 3.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외상구매대금 등의 가계부채 감소
- 4. 물가 안정 5. 정치사회 안정
- 6.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

Q2-2) 귀택의 생활형편이 왜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임금 등의 가계소득 감소 2.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 3.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외상구매대금 등의 가계부채 증가
- 4. 물가 상승 5. 정치사회 불안
- 6.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Q3. 현재 서울지역의 경기는 1년 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똑같습니까?

- 1. 많이 좋아졌다 2. 조금 좋아졌다 3. 똑같다
- 4. 조금 나빠졌다 5. 많이 나빠졌다

Q4. 서울지역의 경기가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 1. 많이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똑같은 것이다
-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Q4-1) 서울지역의 경기가 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부동산 경기 회복 2. 기업경기 회복 3. 주식시장 활황
- 4. 세계 경기 회복 5. 물가 안정 6. 정치사회 안정
- 7.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

Q4-2) 서울지역의 경기가 왜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부동산 경기 부진 2. 소비 부진 3. 투자 부진
- 4. 세계경기 하락 5. 물가 상승 6. 정치사회 불안
- 7.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Q5. 일반물가는 1년 전보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덜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 1. 1년 전보다 많이 오른다 2. 1년 전보다 조금 오른다
- 3. 비슷할 것이다 4. 1년 전보다 조금 덜 오를 것이다
- 5. 1년 전보다 많이 덜 오를 것이다

Q5-1) 귀댁의 소비지출을 지난 1년 전에 비해 줄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더 늘릴 계획입니까?

- 1. 많이 늘린다 2. 조금 늘린다 3. 똑같은 것이다
- 4. 조금 줄일 것이다 5. 많이 줄일 것이다

Q5-2) 향후 1년간 다음의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많이 늘림 조금 늘림 불변 조금 줄임 많이 줄임

- | | | | | | |
|----------|--------|--------|--------|--------|--------|
| 1) 식료품비 | 1..... | 2..... | 3..... | 4..... | 5..... |
| 2) 의류비 | 1..... | 2..... | 3..... | 4..... | 5..... |
| 3) 주거비 | 1..... | 2..... | 3..... | 4..... | 5..... |
| 4) 교통통신비 | 1..... | 2..... | 3..... | 4..... | 5..... |
| 5) 교육비 | 1..... | 2..... | 3..... | 4..... | 5..... |
| 6) 문화오락비 | 1..... | 2..... | 3..... | 4..... | 5..... |

Q6.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물건, 예를 들어 가구나 승용차,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대형물건들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 지금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좋은 때이다 | 2. 약간 좋은 때이다 | 3. 보통이다 |
| 4. 약간 나쁜 때이다 | 5. 매우 나쁜 때이다 | |

Q7.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좋은 때이다 | 2. 약간 좋은 때이다 | 3. 보통이다 |
| 4. 약간 나쁜 때이다 | 5. 매우 나쁜 때이다 | |

Q8. 귀댁의 경우,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년 전보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예: 가계 자산 1억원, 가계부채가 5000천만원인 경우 순자산은 5000천만원)

- | | |
|-----------------------|-----------------------|
| 1. 많이 늘었다(→ Q8-1로 이동) | 2. 조금 늘었다(→ Q8-1로 이동) |
| 3. 똑같다 | |
| 4. 조금 줄었다(→ Q8-2로 이동) | 5. 많이 줄었다(→ 문Q-2로 이동) |

Q8-1) 순자산이 늘어난 것은 다음 중 주로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 | | | |
|-------------|--------------|------------|
| 1. 부동산이 늘었다 | 2. 금융자산이 늘었다 | 3. 부채가 줄었다 |
|-------------|--------------|------------|

Q8-2)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다음 중 주로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 | | | |
|-------------|--------------|------------|
| 1. 부동산이 줄었다 | 2. 금융자산이 줄었다 | 3. 부채가 늘었다 |
|-------------|--------------|------------|

D2. 가구주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대졸 4. 대학원 이상

D3. 주거형태 :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무상/기타

D4. 가족수: () 명

D5. 가계연간수입: ()만원

D6. 응답자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2) 2012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Q. 귀댁에 대학생 이하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 해당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응답자 특성 질문으로 이동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대입재수생 포함)	대학생 자녀
명	명	명	명	명

문1-1) 보육비를 제외하고 미취학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습지/학습지 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5) 유치원 아인이집 특강	1. 있음 2. 없음	만원
6) 가티(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문2-1)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1) 학습지/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 (음악, 미술, 체육, 주말체육 포함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안타깝지만의 포함) (보습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5) 방과후 학습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6) 어학연수비/캠핑/국내 포함 조기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7) 기타(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문3-1)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습지/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안타깝지만의 포함) (보습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5) 방과후 학습	1. 있음 2. 없음	만원
6) 어학연수비/캠핑/국내 포함 조기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7) 기타(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문4-1) 대학생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2) 특강	1. 있음 2. 없음	만원
3) 여학원수비/캠핑국내 포함 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 (코딩원 계산 후 기입)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 : _____만원

문5) 전체 소득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문6)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까? 감소하였습니까?

1. 감소함 2. 변함없음 3. 증가함

문7)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8) 방과후 학습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습니까?

1. 감소함 2. 변함없음 3. 방과후 학습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육비 증가

문9)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어떤 지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1. 식료품비 2. 의류비 3. 주거비 4. 교통통신비
5. 내구재구입비(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등) 6. 문화오락비
7.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등 8. 기타 _____

문10) 토요일휴업일 도입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까? 증가하였습니까?

1. 감소함 2. 변함없음 3. 증가함

부록 2 기업체감경기 조사표

1) 기업체감경기 기본조사 세부내용

이 조사는 기업인들의 최근 경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명			전 화			작성일		
본사 주소								
상시 종업원수 20년 월 말 현재			()명					
작성재작성자 e-mail			부 서			직 위		
2009년 매출액	억원		2009년 수출액	억원				
업종	제조 () 비제조 ()	기업형태1	대기업 () 중소기업 ()	기업형태2	수출기업 () 내수기업 ()			

■ 귀사의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1. 분기별 경기동향 실적 및 전망

(“비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음영처리된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각 항목은 전년대비 실적 및 전망을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실적 및 전망 (전년대비 기준)	왼쪽 번호기재	
			실적	전망
귀사만의 경기전반		① 매우 나쁨 ② 다소 나쁨 ③ 동일 ④ 다소 좋음 ⑤ 매우 좋음	()	()
나쁜 이유 (①②응답)		① 국내수요 감소 ② 해외수요 감소 ③ 자금조달 곤란 ④ 가격경쟁력 약화 ⑤ 인력부족 ⑥ 업체간 과당경쟁 ⑦ 원자재조달 곤란 ⑧ 환율불안정 ⑨ 기타 ()	()	()
			()	()
좋은 이유 (④⑤응답)		① 국내수요 증가 ② 해외수요 증가 ③ 자금조달 원활 ④ 환율안정 ⑤ 가격경쟁력 강화 ⑥ 원자재조달 원활 ⑦ 기타 ()	()	()
			()	()
생 산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매 출	내수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수출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경상이익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자금사정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기동률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설비투자규모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2.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번 분기 상황과 다음 분기 전망을 판단하여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수준 실적 및 전망	실적	전망
제품재고수준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중사자수수준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부록 3 2011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주요 조사 결과

〈부록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4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2012년 2/4분기	90.3	87.2	105.6	64.2	97.4	96.8	100.0
2012년 3/4분기	83.1	85.9	100.6	49.6	85.5	93.8	95.6
2012년 4/4분기	83.8	99.3	98.0	48.3	88.2	97.7	99.8

〈부록표 2〉 서울지역 소비자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2012년 1/4분기	91.3	98.9	96.8	88.0	147.1
2012년 2/4분기	93.6	101.5	99.2	94.0	146.3
2012년 3/4분기	90.1	98.5	95.2	83.8	151.5
2012년 4/4분기	90.4	98.0	94.6	84.7	145.7

〈부록표 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11 4/4분기	'12 1/4분기	'12 2/4분기	'12 3/4분기	'12 4/4분기	'12 1/4분기	'12 2/4분기	'12 3/4분기	'12 4/4분기	'13 1/4분기
매출	89.5	88.3	87.6	78.5	74.8	91.7	96.9	89.3	87.1	77.1
내수	90.5	89.6	87.2	78.9	76.1	93.0	98.5	88.6	87.6	78.4
수출	87.3	84.1	89.0	85.8	78.7	88.9	92.4	90.8	96.2	83.6
생산	88.2	82.7	89.8	88.5	81.3	89.2	86.8	92.9	91.2	84.9
설비동률	88.7	89.6	95.6	89.1	79.0	91.7	89.4	98.0	91.1	81.1
설비투자	86.5	90.2	83.6	93.1	90.0	87.4	90.7	85.1	93.8	92.0
경상이익	90.0	86.4	86.9	81.9	75.8	92.3	95.1	89.7	88.9	76.5
자금사정	93.2	89.5	88.5	85.3	84.0	95.1	92.8	94.3	88.2	86.3
제품재고	101.5	101.3	107.1	93.1	108.5	100.9	103.2	107.3	102.7	110.0
중사자수	92.2	92.8	97.9	100.9	92.0	94.1	92.5	97.3	94.1	91.5

영문 요약 (Abstract)



Research on Consumer and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Hee-Seok Park · Bum-Sik Kim · Moo-Han Kim · Ji-Won Kwak

It is believed that the Consumer Survey Index (CSI) and the Business Survey Index (BSI) would be the most useful indicators to understanding the business cycle. In case of South Korea, the national CSI and BSI have been released since 1995 by the Bank of Korea. However, there are not informed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gion in the economy of South Korea. To diagnosis economic conditions in SMA, the Seoul Institute (SI) has been quarterly researched CSI and BSI in Seoul since the 4th quarter 2008. These indices are expected to provide primary data for analyzing business cycles and for managing local economic plans as well.

The sample of CSI in Seoul is consisted of 1,000 households who should be aged over 20 to 69, married or ever married, living in Seoul. It is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which is assigned by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households for each age and distinction in Seoul. This survey is conducted by phone and indexed as a result of the household responses based on the attitudes and expectations of the consumers concerning the present and future state of the economy, household living standar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lans, etc.

The sample of BSI in Seoul coverage includes 500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corporations which are located in Seoul. It is selected by Neyman sampling method assigned by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industry and annual sales and conducted by fax. This survey is and based on the attitudes and expectations of the corporation concerning the present and future business situation and employment.

The CSI and BSI are estimated as follows :

$$\text{CSI (BSI)} = \frac{\sum w_i f_i}{n}, \quad i = 1, 2, \dots, 5$$

Where is the weight attached to the i th response such as better (w_1)=200, good (w_2)=150, same (w_3)=100, bad (w_4)=50, worse (w_5)=0, f_i is the number of selecting i th responses, and n is the total number of sample. In case of BSI, it is weighted by annual sales and response rate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The index is based on 100 which 100 means that the number of positive answer is equivalent to negative.

The main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

Consumer Survey Index in Seoul

	CSI	living conditions		business conditions		expenditure	
		present	expect	present	expect	durable consumer goods	household consumption
4Q 2011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1Q 2012	82.7	84.6	99.6	50.6	87.5	91.2	95.0
2Q 2012	90.3	87.2	105.6	64.2	97.4	96.8	100.0
3Q 2012	83.1	85.9	100.6	49.6	85.5	93.8	95.6
4Q 2012	83.8	99.3	98.0	48.3	88.2	97.7	99.8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present					expect				
	4Q '11	1Q '12	2Q '12	3Q '12	4Q '12	1Q '12	2Q '12	3Q '12	4Q '12	1Q '13
major	83.9	78.1	83.6	75.2	72.8	92.4	85.6	92.9	79.1	73.9
sale	89.5	88.3	87.6	78.5	74.8	91.7	96.9	89.3	87.1	77.1
domestic consumption	90.5	89.6	87.2	78.9	76.1	93.0	98.5	88.6	87.6	78.4
export	87.3	84.1	89.0	85.8	78.7	88.9	92.4	90.8	96.2	83.6
product	88.2	82.7	89.8	88.5	81.3	89.2	86.8	92.9	91.2	84.9
capacity utilization	88.7	89.6	95.6	89.1	79.0	91.7	89.4	98.0	91.1	81.1
Facility investment	86.5	90.2	83.6	93.1	90.0	87.4	90.7	85.1	93.8	92.0
ordinary income	90.0	86.4	86.9	81.9	75.8	92.3	95.1	89.7	88.9	76.5
capital	93.2	89.5	88.5	85.3	84.0	95.1	92.8	94.3	88.2	86.3
stock	101.5	101.3	107.1	93.1	108.5	100.9	103.2	107.3	102.7	110.0
employee	92.2	92.8	97.9	100.9	92.0	94.1	92.5	97.3	94.1	91.5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Monitoring of CSI & BSI and Press

Chapter 3 Result of Survey in 4Q 2011

Chapter 4 Result of Survey in 1Q 2012

Chapter 5 Result of Survey in 2Q 2012

Chapter 6 Result of Survey in 3Q 2012

Chapter 7 Result of Survey in 4Q 2012

Chapter 8 Current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Appendices

서울연 2012-BR-04

2012년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조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941-4 9332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